

월간LH이 2

CHEER UP! 우리 함께 힘내요!

2

式H

2

8

커리어 코치이자 채용전문가 윤영돈 코치의 테마 인터뷰는 18p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트렌드 캐치업

2022년 채용 트렌드, 어떻게 달라질까? 내일로 붐업

장난감은 평등하다 장난감 수리 기업, 코끼리 공장 날마다 레벨업

지구는 일회용이 아니니! 일회용컵 말고 챌린지



월간 내 이

Contents





세상을 다정하게 어루만지는 봄햇살처럼 고용노동부가 따스하게 곁을 비추겠습니다.



Chapter 1 트렌드 캐치업!

80 톡톡톡

> 여러분의 '구인구직'은 안녕하십니까?

10 트렌드 인사이드

> 코로나 3년차! 2022년 채용 트렌드 어떻게 변할까?

16 고용날씨 예보

> 상반기 주요 일자리 전망은? 전자·반도체 '화창', 디스플레이 '흐림'

18 내일이 만난 사람

> 채용 시장에 부는 바람을 읽다 -윤영돈 코치

정책모음,ZIP 24

> 모두 같이 일하는 행복! 고용노동부가 함께 합니다





Chapter 2 내일로 붐업!

34 뉴 스타트

> 오답노트가 교과서가 되기까지 -임영미 전직지원 컨설턴트

38 청년꿈터

> 꿈을 위한 레이어드 -국민내일배움카드 우수사례자 정선아 씨

42 굿&굿 오피스

> 마음을 어루만지는 노사 문화 우수기업 -휴넥트

46 더불어 세상

> 모든 아이들의 장난감을 위하여 -코끼리 공장

50 고용노동 뉴스





Chapter 3 날마다 레벨업!

62 미디어 속 노동읽기

> 트레이서 속, 국세청 근무환경. 현실과 얼마나 비슷한가요?

JOB툰 66

디지털휴먼 68

뉴스를 쉽게 이해하는 IT용어

70 하이파이브

카톡도 통역이 되나요?

72 주말에 뭐 할래?

> 직장인 품격을 높여주는 교양·정치 큐레이션

76 플레이리스트

월요병 퇴치하는 출.근.송

그린 리추얼 78

> 함께 실천해요! 일회용컵 말고 챌린지

80 내일스타그램



고용노동부 소식지 <내일>

통권 강남 라 00389(통권 562호) 발행처 고용노동부 발행인 고용노동부 장관 편집위원 고용노동부 대변인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전화** 044-202-7782 **홈페이지** www.moel.go.kr 웹진 www.labor21.kr **기획·제작** 큐라인





우리 함께 세상 읽기

2022년 채용 트렌드, 어떻게 달라질까?

새로운 이슈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세상.

시대의 변화는 구직자에게도, 기업에게도

여러 가지 고민거리와 숙제를 던져줍니다.

올해 채용 트렌드에는 어떤 변화의 바람이 불까요?

기업은 어떤 전략을 펼치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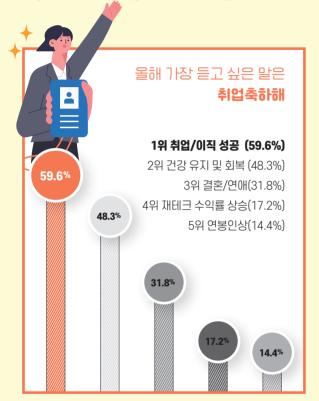
우리 함께 알아보고 기운차게 앞으로 나아가 봅시다!

트렌드 캐치업 + 톡톡톡 정리 편집실

여러분의 '구인구직'은

안녕하십니까?

올해 취직과 이직 계획 있으신가요? 다행히 2022년 채용시장은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는 듯합니다.



<2022년 개인적으로 가장 듣고 싶은 소식은?>

출처: 알바몬 / **대상:** 20대 이상 성인 남녀 2291명 기간: 2021, 12, 23~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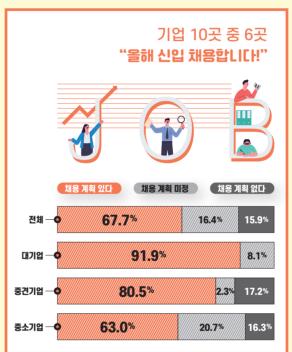


<3개년(2019~2021년) 채용공고 빅데이터 분석> 출처: 사람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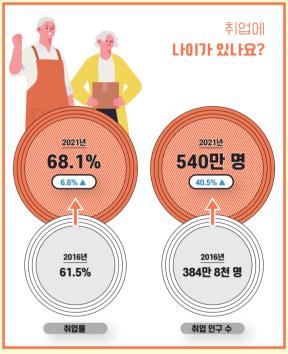






<2022년 대졸 신입사원 채용 계획>

출처: 잡코리아 / 대상: 국내기업 567개사



<2021 경제활동인구조사>

출처: 통계청 / 대상: 고령층(55~79세)





2022. March vol.562

트렌드 캐치업 + 트렌드 인사이드 정리 편집실

코로나 3년차!

2022년 채용 트렌드

어떻게 변할까?

어느새 코로나 시대 3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미크론의 위협이 만만치가 않지만, 그래도 2022년에는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 그러니 이제까지와는 또 다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채용 트렌드는 지난해와 어떻게 달라질까요?





코로나19, 채용 방식을 어떻게 바꿨나?

우리 생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준 코로나19. 채용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2021년 은 기업의 정기적인 '공개 채용(공채)'가 크게 줄어들면서 '수시 채용'이 대세가 되었습니다. 인재를 사전 점검할 수 있는 '인턴 채용' 역시 눈에 띄게 증가했고요, 신입보다는 경력직 채용이 늘어나면서 취업 대신 이커머스 등 창업을 택하는 청년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 두드러진 특징은 많은 기업들이 '비대면 채용 방식'을 도입했다는 점입니다. 온라인으로 필기시험을 보거나 화상면접을 치르고, AI(인공지능)를 이용한 AI 면접과 AI 역량 검사를 도입한 곳도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2022년 채용 시장은?

수많은 전문가들이 2022년의 채용 트렌드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저마다 관점에 따라 여러가지 예측이 가능하겠지만, 공통되는 흐름이 있답니다. 2022년 채용 트렌드, 이 정도는 꼭 기억해두세요!



Q 일년 내내 수시 채용!

Search

수시 채용 트렌드는 2022년에도 이어질 전망이 나다. 예전에는 어느 정도 예상되는 상/하반기 공채 시즌이 있었지만, 이제는 사실상 공채 채용은 대부분 폐지됐다고 봐도 무방할 듯합니다. 하지만 다행히 지난해에 비해 신입 및 경력사원 채용이 늘어난다는 기쁜 소식이 들리네요. 단, 정해진 시기 없어 일년 내내 부서, 직무별로 채용이 진행되니 관심 기업과 업무 분야는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채용 전략을 패야 합니다.

늘봄이의 취뽀 TIP

온라인에 항상 눈과 귀를 열어두세요. 홈페이지 탐색은 기본! 요즘 기업들은 인스 타. 페북. 유튜브 등을 통해서 꾸준히 경영의 방향성을 알리기 때문에 관심기업의 SNS도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유튜브를 통해 자사 채용 정보를 알려주는 곳도 많으니 관심기업 구독 필수

Q 비대면 면접, 더 늘어난다!

Search

위기 내용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도입되는 듯했던 '비대면 채용 방식'은 이제 정착 단계에 이른 듯하고 더욱 가속화될 조짐입니다. 특히 화상면접은 공정성과 소통 면에서도 좋은 평을 듣고 있어서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AI 면접 및 역량 검사를 도입하는 기업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늘봄이의 취뽀 TIP

아직 비대면 면접에 익숙하지 않다면 줌, 웹엑스, 팀즈 등 줌 화상회의 플랫폼으 로 연습을 해보세요. AI 면접에서는 '웃또긍(웃는 표정, 또렷한 발음, 긍정적인 표 현)'이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인터넷에서 'VR면접체험', 'Al면접체험'을 검색해 체험

프로그램을 활용해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이제 채용 시장도 메타버스 열품!

Search

지금 '메타버스'는 명실공하 가장 핫한 귀워드일 텐데요. 채용 시장에서도 무섭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메타버스 플랫폼 '게더타운'에서 열린 취업박람한에 삼성. L.G. KT. 오뚜기, 충성 등 80여 개 기업이 참여해 한제가 되었습니다. 가상세계에서 인사담당자 아버티와 취업준비생 아버티가 만나 면접과 교육을 진행했지요.

구인구직 플랫폼 '사람인'에 [[나르면 기업 493개사를 [내상으로 조사한 결과. 41.6%가 "메티버스 채용을 도입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더불어 전체 기업 중 64.5%는 향후 메타버스 채용이 확대될 것이라. 전망했다고 하네요.



늘봄이의 취뽀 TIP

미지의 세계 '메타버스'에 너무 겁먹을 필요 없어요! 아직은 모두가 메타버스에 익 숙하지 않답니다. '모여봐요 동물의 숲', '제페토', '포트나이트', '로블록스' 등 대표적인 메타버스 플랫폼들을 놀이하듯 둘러보면서 메타버스와 우선 익숙해져 보세요.

Q 시니어도 디지털 리터러시!

Search

인구 고령한로 일하고자 하는 중작년층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변화한 채용 환경에서는 중장년 고경력자인 의미도 예전과 같은 무게가 있지 않습니다. 새로운 산업군에서 다시 출발해야 하는 중장년층은 사실상 '신입'이나 다름없지요. 채용은 물론이고 업무의 방식이 점점 더 온라인 중심으로 변해가고 있는 요즘 같은 시대에는 청년은 물론이고 중장년층 역시 '[[지털 기터러시(문해력)' 가 업무역량이 관건이 됩니다.

늘봄이의 취뽀 TIP

청년 세대는 디지털과 연관된 채용 스터디가 활성화되어 있지만 시니어는 상대적 으로 정보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상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해서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을 갖춘 게 아니랍니다. 박막례 등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니어 유튜버들이 많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자신만의 SNS 채널을 만들어보고, 디지털 정보도 다방면으로 습득 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적응할 수 있어요.

12 ___ 13 2022. March vol.5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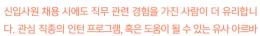
Search

구인구직 플랫폼 '잡코리아'가 최근 국내 기업 567개사 대상으로 "신입사원 채용 시 중요하게 평가하는 기준"을 물었더니 1위가 바로 '지원 분야에서 일해본 경험(53.8%)'이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이 '지원 분야 전문지식과 자격증(38.6%)'이었습니다.

한국바른채용인증원이 최근 발표한 '2022 채용트렌드'에서도 채용전문 면접관 375명이 꼽은 채용 트렌드 1위(73%)는 '직무 중심'이었습니다. 즉취업 성패는 해당 업무를 경험해봤느냐가 관건이라는 것이죠.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공동으로 조사한 '취업준비생 애로 경감 방안'에서도 기업들은 모두 '직무 관련성'을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래도 경력자가 채용 우위에 있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이제는 소위 '스펙'보다는 경험을 선호하는 경향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해 시장 상황이 시시각각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투입되고 즉각 성간를 낼 수 있음을 어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 것이지요.

늘봄이의 취뽀 TIP



이트 등으로 경험을 쌓아보세요. 기업이 채용을 고려할 때 구직자의 SNS도 참고 한다는 걸 아시나요? SNS에 자연스럽게 자신의 경험을 비롯해 지적 능력, 열 린 태도, 창의성 등 '보이지 않는 직무 역량'을 어필하는 것도 좋은 방법!

○ 세계는 지금 ESG!

Search

메E버스와 함께 2022년 꼭 숙지해할 단어, ESG! 환경(Environment), 사회 (Social), 지배구조 (Governance)의 줄임말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철학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ESG는 기업경영의 세계적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는 만큼, 당연히 채용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칩니다. ESG 전문가를 찾고 있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고요, ESG 경영에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는 경향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늘봄이의 취뽀 TIP

일단 ESG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ESG라고 하면 '친환경'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사회와 조직 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답니다. 관련도서나 콘텐츠가 많이 나와있으니 공부합시다. ESG!



소셜 리쿠르팅을

아시나요?

우리나라의 온라인 채용 플랫폼으로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을 비롯해 잡코리아, 사람인, 인크루트, 커리어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몇 해 전부터 '소셜 리쿠르팅 플랫폼'이 뜨고 있다는 것 아시나요?
소셜 리쿠르팅(Social Recruiting)이란 '구인구직'과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합쳐진 개념입니다. 구직자와 채용 담당자가 각자 관심있는 정보를 찾고 서로 인맥을 쌓기도 하는 일종의 '비즈니스형 SNS 서비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미국 등 서구에서는 이미 보편화되어 있고 국내에도 다양한 플랫폼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해외 경우를 보아도 소셜 리쿠르팅은 더욱 더 확장될 조짐이니, 각 플랫폼별 특징을 숙지해두면 앞으로 채용 시장에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대표적인 소설 리쿠르팅 플랫폼

링크드인: 세계 최대의 소셜 리쿠르팅 플랫폼

로켓펀치: 커뮤티니 성격의 비즈니스 네트워크 플랫폼

원티드: 지인 추천제 채용 정보 플랫폼

리멤버 커리어: 잠재적 이직자 대상 인재 검색 서비스

14 ___ **15** 2022. March **vol.562**

<mark>트렌드 캐치업 + 고용날짜 예보</mark> 정리 편집실

장반기 주요 일자리 전망은?

전자·반도체 '화창', 디스플레이 '흐림'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공동으로 조사한 <2022년 상반기 주요 업종의 일자리 전망>을 한번 살펴볼까요?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www.ke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회복세. 특히 친환경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은 감소하겠지만, 친환경 선박 수요 증가는 업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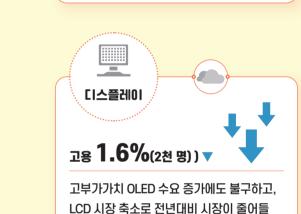




철강 업종은 대부분 품목의 수요가 확대되면서 전반적으로 생산이 증가할 전망입니다.



상반기에는 친환경차 해외 판매 확대 등으로 수출 증가. 내수는 전년 수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도체

것으로 전망됩니다.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 1.9%(3천명)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세.

특히 시스템 반도체 최대 수출 실적을 경신할





대내외 금융시장 환경의 불확실성 확대로, 고용은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입니다.

16 ___ 17 2022. March vol.562



채용 시장에 부는

바람을 읽다

윤영돈 코치



채용은 개인의 미래는 물론 기업, 국가의 산업 발전까지 좌우하는 중대한 일입니다. 하지만 예민하게 요동치는 채용 시장의 트렌드를 읽어내기란 참 어렵습니다. 커리어 코치이자 채용 전문가 윤영돈 코치는 채용 방식과 가치관, 조직문화 등의 변화로 혼란을 겪는 채용 담당자와 채용 준비생을 위한 책, '채용 트렌드 시리즈'를 3년째 출간하고 있습니다. <채용 트렌드 2022>를 선보인 윤영돈 코치를 만나, 채용 트렌드와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Q _ 한 해의 채용 트렌드를 전망하고 분석하는 책을 세 견째 내셨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채용트렌드 2022>를 출간했는데요, 지난해 주제가 '코로나가 바꾼 일하는 방식의 변화'라면 올 해는 'MZ세대가 바꾸는 채용문화의 변화'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2021년 채용 트렌드는 코로나19로 인해 '방식(Method)'이 바뀌었다면, 2022년 채용 트렌드는 MZ세대에 의해 '경험 (Experience)'이 변합니다. 다시 말해 2021년엔 일하는 방식이나 기술에 채용 초점이 맞춰졌다면, 2022년엔 그 기술을 활용해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는지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MZ세대 세대가 사회 트렌드 전반을 주도하기 시작하고 이들과 함께하는 것이 기업의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기업들도 MZ세대의 니즈에 맞춘 채용을 실시하는데요. 라이브 방송이나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하는 등 MZ세대를 영입하고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죠.

Q _ 백신 접종 가속화로 올해 채용 시장은 어느 정도 완화될 까요? 팬데믹 기간 동안 근무의 패러다임이 많이 변한 만큼, 채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백신을 맞았으니 경제가 활발해질 것이다, 채용 시장이 대거 풀릴 것이라 생각하시는데 저는 조금 다릅니다.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약간은 풀리겠지만 여전히 혼돈의 시기 일 것으로 내다봅니다. 모두가 아시듯 미래가 불확실할 때 기 업은 그룹 공채에서 계열사 공채로, 직무 역량 중심의 수시·상 시 채용을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정기로 가는 과도기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8 ____ **19** 2022. March **vol.562**



Q _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채용 경로가 다각화 되고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를 활용해 채용이 이뤄지는 '소셜 리크루팅'이 앞으로도 확대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물론입니다. 예전에는 필요한 인원을 예측해 인사부서에 충원 요청을 하면 한꺼번에 채용 공고를 내고 서류, 면접 등을 통해 직무에 맞는 사람을 뽑는 방식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기존의 채용 채널들과 비교할 때 비용이 적게 들 뿐만 아니라 소셜미디어의 파급력을 통한 채용 계획 홍보, 나아가서는 기업 홍보까지 가능한 '소셜 리크루팅'이 확대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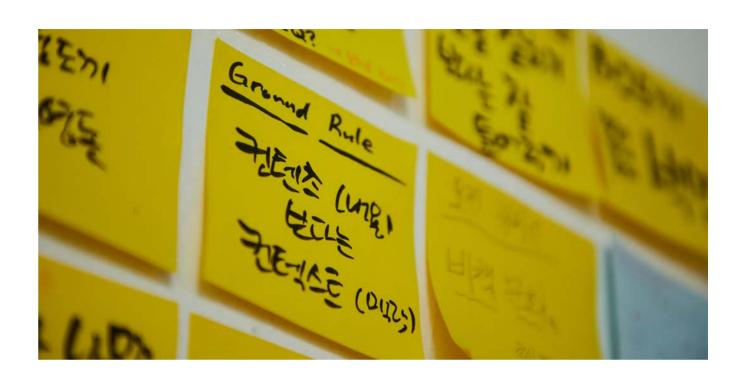
예전 채용 공고를 올리면 관심 있는 지원자들이 이메일로 소통했다면 요즘은 쪽지, 멘션, 트윗 등 메신저를 통해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있죠. 실제로 포스코는 인스타그램 메신저를 통해 채용 담당자가 1대1로 문의 사항에 실시간으로 답변하거나 채용 상담을 하는 이른바 'DM(Direct Massage) 상담'을 진행하기도 했어요. 기업마다 채용 담당자의 기호와 성향에따라 선호하는 소셜미디어도 다릅니다. 소셜미디어마다 각각의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관심있는 기업이 있다면 소셜미디어 팔로우는 물론, 해당 기업이 어떤 소셜미디어를 잘 이용하는지도 파악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Q _ 그런가하면 일과 학습의 균형을 중요시하는 '워러밸(워크 앤 러닝 밸런스 Work and Learning Balance)'을 가조하셨어요.

원격 근무나 화상 면접 등 비대면 채용과 온보딩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조직문화에서는 워러밸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참 고로 온보딩(On Boarding) 프로그램이란 직장을 정착지가 아닌 경유지로 생각하는 최근 트렌드에 맞춰 직원들을 회사에 잘 안착시키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시하는 워라밸이 유행이었다면 팬데믹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재택근무를 하게 되며 일과 학습을 분리할 수 없는 현실이 도래한 것입니다. 앞 으로는 업무가 효율화되면서 생기는 시간과 에너지를 학습에

다양한 것을 어설프게 아는 사람이 아니라 이질적인 분야들을 연결시키는 융합형 인재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화를 숭배하는 사고에서 벗어나 더 이상 한 가지 직업만으로는 변화하는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쏟아야 합니다. '일·학습 병행제'처럼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이원화 제도로 취업을 원하는 학생이 기업 현장이나 교육기 관을 통해 체계적인 교육을 받음과 동시에 배운 것을 바로 현장에 적용해 일할 수 있게 될 겁니다.

Q _ 어떤 면에선 코치님께서 강조하시는 '폴리매스형 인재'와 연결되는 01071 같습니다.

맞습니다. 한 우물만 파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평생 학습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왔고 그럴수록 다재다능한 폴리매스 (Polymath)형 인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폴리매스란 박학 다식한 사람으로 여러 분야에 대해 많이 알고 있거나 백과사 전식 지식을 지닌 사람을 일컫죠. 이는 지난 2021년 키워드로 뽑았던 '멀티 커리어리즘'과 연결됩니다.

단순히 다양한 멀티플레이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것을 어설프게 아는 사람이 아니라 이질적인 분야들을 연결시키는 융합형 인재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화를

숭배하는 사고에서 벗어나 더 이상 한 가지 직업만으로는 변화하는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탐구를 귀찮아하지 않고 움직여야 하고 여러 분야의 지식을 두루 섭렵해야 합니다. 서로 무관해 보이는 영역들을 연결해 창의적 결과물을 도입하는 연습을 게을리해선 안됩니다.

Q _ 면접 과정에서 많은 구직자가 삼처를 입기도 합니다. 이는 다음 면접이나 회사 생활에 큰 트라우마가 남기도 하죠. 그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충분히 힘들 수 있습니다. 트라우마가 쉽게 없어지진 않겠지만, 저는 낙관과 긍정의 차이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낙관은 어떤 현상을 그저 아름답고 좋게 바라보고 마는 것입니다. 긍정은 어떤 현상에서도 본인의 것으로 좋게 만드는 것입니다. 낙관주의자가 되지 마시고 긍정주의자가 되세요. 면접에서 어떤점이 문제였는지 짧고 굵게 생각하시고. 그것을 바꾸는 방법에

20 ___ **21** 2022. March **vol.562**

집중하세요. 자책하지 마세요.

예전에는 월급을 주는 기업이 '갑'이고 입사를 원하는 면접자는 '을'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올해 또 하나의 키워드가 바로 '리버스 인터뷰(Reverse Interview)'입니다. 면접자도 잠재적 고객이라는 발상에서 시작하는 개념입니다. 면접관과 지원자의 역할을 바꾼 역지 사지의 관점이죠. 우수한 지원자일수록 지원하는 회사가 자신의 전문성을 살리고 성장할 수 있는 회사인지 면접을 보고 판단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실패의 경험을 기반 삼고 학습을 통해 면접자의 자질을 높이시길 바라니다.

Q_' '커리어 모자이크'에 집중하라는 의미로 들려요.

그렇죠. 평생직장의 개념이 없어지고, 평생 직업의 시대가 왔습니다. 'N잡러'라는 단어까지 생겨나고 있는 것이 트렌드입니다. 블라인드 테스트도 늘어나는 만큼, 구직자는 자신의

커리어를 쌓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커리어 모자이크(Career Mosaic)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자신의 최종 목표를 완성하기 위해 전 생애에 걸쳐 작업이나 경험들을 취합해 나가는 것이죠. 고용주에게만 귀속되지 않고,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의 내부와 외부에서 기회를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조직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설정한 궤도를 따라 자신의 커리어를 관리해 나가시 면 좋겠습니다.

Q _ 젊은 세대에게는 그럴 수 있는 시간이나 에너지가 많겠지만, 시니어들에겐 힘에 부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시니어 구작자들이 설자리는 없는 것인가요?

전혀 아닙니다. 올 한 해 중요한 또 하나의 채용 트렌드가 바로 '시니어 시프트(Senior Shift)' 입니다. 시니어 시프트는 모든 산업의 주요 비즈니스 중심이 젊은 층에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시니어로 이동하는 경제적·사회적 현상을 말합니다.

우수한 지원자일수록 지원하는 회사가 자신의 전문성을 살리고 성장할 수 있는 회사인지 면접을 보고 판단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실패의 경험을 기반 삼고 학습을 통해 면접자의 자질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예전과 달리 경제력과 활동력을 모두 가진 시니어가 대거 등 장하는 만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시니어 창업이 늘어나고 있고 미국은 시니어의 관심사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유튜브나 SNS에서 활발히 소통하는 스마트 시니어가 늘어나며 이들을 위한 기업의 고객만족 경영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SK브로드밴드는 고객자문단의 시니어그룹을 통해 신규 서비스 사전 체험, 개선점 발굴,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직을 준비하시는 시니어들은 멋진후반전을 위해 충분한 준비를 하길 바랍니다. 하루가 달라지는 몸을 챙기고 지나친 욕망을 줄여야 합니다. 예전에 어떤 일을 했다는 것에 집착하면 안됩니다. 무엇보다 뉴스나 온라인,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길 부탁드립니다.

Q _ 2022년 채용시장에서 채용을 앞둔 기업이나 채용 준비자 들이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요?

언택트(Untact)를 넘어 딥택트(Deep-tact)로 진화된다는 것입니다. 딥택트는 깊다는 의미의 딥(Deep)과 연결이란 의 미의 컨택트(Contact)가 합해진 신조어죠. 화상면접, 재택 근무가 언택트였다면 이 과정에서 더 깊이 있는 관계를 정립 하고, 그에 맞는 성과를 내어놓는 것이 딥택트라고 할 수 있 습니다. 딥러닝, 딥워크, 딥택트는 모두 깊이를 추고하는 기술 이죠. 직접 대면하지 않으면서도 깊은 관계를 추구하는 것으 로 관계의 양보다 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트렌드와 이어지 는 지점이 있어요. 기업은 접속, 이동 시간 절약, 사무실 임대 비용 절감 등 비대면의 장점도 있지만 원활하지 않은 소통이 나 공감을 얻기 어려운 환경 등 비대면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 한 고민을 멈추지 말아야 해요. 채용 담당자도 채용 과정에서 수박 겉핥기가 되지 않도록 딥택트 전략을 통해 깊이 있는 면 접을 해야합니다. 취업 준비자 역시 가고자 하는 기업의 딥택 트 전략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면접을 준비해 야 할 것입니다.



22 ___ 23 2022. March vol.562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첫 일자리 구하는 청년, 장기구직자, 경력단절여성들 주목!

2021년 처음 도입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벌써 시행 2년째를 맞습니다. 1995년 도입된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제도'는 고용보험료의 납부를 전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생애 처음 일자리를 구하려는 청년, 장기구 직자, 경력단절여성 등은 보호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어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이렇게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이 일자리를 구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계지원과 취업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2차 고용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 취업지원서비스: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등 제공
- * 소득지원: ▲ I 유형: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6개월, 최대 300만 원) ▲ II 유형: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 활동비용(최대 195,4만 원)

		l 유형			∥유형			
구분			요건심사형	선발형		트저게츠	청년	조대리
		청년		비경제활동	특정계층	성단	중장년	
	L	-}이	15~69세(청년: 18~34세, 중장년: 35~69세)					
지원대상	소득		중위소득 60%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무관	무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			무관		
	취업경험		2년이내 100 일또는 800 시안이상	무관	2년이내 100 일또는 800 시안이상	무관		
지원내용	취원지원서비스		0					
	소득지원	구직촉진수당	0			X		
		취업활동비용	Х			0		

적극적인 시행으로 지난해 42만 명을 지원

지난 해 2차 고용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도입되고 적극적으로 시행되면서, 고용보험과 함께 우리나라 고용안전망이 보다 탄탄하게 구축되었습니다. 2021년 한 해 50.9만 명의 국민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신청했고, 약 2 42.3만 명의 취업취약계층이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았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I 유형 참여자는 34.1만 명으로, 이 중 청년은 21.1만명(61.9%), 여성은 18.9만명 (55.4%)이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서비스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21년, 노동연구원 조사 / * I 유형 요건심사형 참여자의 65.5%가 '만족한다'고 응답) 특히, 참여비중이 높은 청년층 참여자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24 ___ **25** 2022. March **vol.562**

2022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규모 확대됩니다!

2022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전년(본예산 기준 59만명)과 유사한 수준인 총 60만 명을 지원합니다. 특히,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저소득층(I 유형 40만→50만 명), 청년(청년특례 10만→17만 명)에 대한 지원규모가 대폭확대되었습니다.

			'21년 (1.2조	5원(본예산))	'22년 (1.5조원)	
I	요건심사형		25만명		25만명	
	선발형	청년	10만명 *추경 5만명 별도	40만명 *추경 5만명 별도	17만명	50만명
		비경활	5만명		8만명	
	특정계층		4만명		1만명	10만명
II	청년		13만명	19만명	8만명	
	중장년		2만명		1만명	

2022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이런 부분들이 업그레이드됩니다!

▶ 적극적인 구직노력 지원 강화!

- 조기취업성공수당 신설

2022년부터 참여자가 구직촉진수당을 3회차 이내로 수급하고 취·창업할 경우 50만 원을 조기취업성공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참여자의 취업유인 제고를 위해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하는 종전의 취업성공수당* 구조에서, 보다 신속한 취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들어 2022.1.1.부터 새로 도입합니다. <'22. h 경제정책방향>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및 Ⅱ 유형 특정계층 대상: 취업 후 6개월·12개월 근속 시 각 50만 원, 10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 지급(총 150만 원)/

- 취업알선 강화

참여자들이 실제 취업에 이를 수 있도록 '22년 상반기 고용센터 내에 '취업알선 전담팀'(인천·구미 2개소)과 일자리정보 연계·조정팀(부산 등)을 시범운영하고, 전 지방관서 확대 적용을 추진합니다. 또한,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중 최종 3개월은 '집중취업알선기간'으로 운영하고, 월 2회 구인정보 및 관련 서비스를 필수 제공합니다.

-구직의사 확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취업지원제도로서 참여 초기부터 참여자의 구직의욕 확인을 위한 과제를 부여*하고, 대면상담(1·4회차 지정일) 등을 통해 취업지원 단계별로 구직의사를 지속 확인합니다. 또한 디지털 활용에 익숙한 청년층 등을 위한 인공지능(AI) 모의면접*('21년, 31개 센터 도입: 인성·역량·외국어면접 유형별 연습 등), 채용지원 시스템을 강화합니다.

-취업연계 강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22년 신설), 고용촉진장려금** 등과 연계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약계층의 취업을 적극 지원합니다.

- * 중소기업 등이 미취업 청년 정규직 채용 및 6개월 고용유지 시, 기업에 청년 1인당 月80만원, 年최대 960만원
- ** 국민취업지원 참여자를 기간의 정함 없는 근로계약자로 6개월 이상 고용 시 月60만원, 年최대 720만원

▶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2022년부터 구직의지·역량 등 구직자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취업역량평가를 전면 개편하고, 참여자 유형별로 차별화된 취업지원을 강화합니다.

아울러, 서비스 제공 표준안*을 마련·보급하여 상담사의 업무수행을 체계화하고,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 * 역량이 낮은 구직자(A·B유형): 구직기술 향상(집단상담 등) 의무화, 직업훈련·일경험 제공 역량이 높은 구직자(C·D유형): 면접클리닉, 알선 등 우선제공 등 상담사 개입·지원 확대
- * 업무 중요도·비중, 수행방식 및 수행주기, 반복성 등 고려 → 상담사가 취업지원 과정에서 자기 점검, 즉시 활용할 수 있는 필수 업무 및 절차 마련

▶ 일경험 프로그램 내실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일경험을 통해 취업역량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일경험 프로그램을 내실화합니다. 참여자에게 일경험 입사 전(前)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 및 면접 등 모의 지원 등 구직활동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기본 직무 소양의 숙지를 위한 온라인 학습환경 구축, 참여자 과제 부여 등을 통해 밀착관리·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운영기관도 대폭 확대해, 신속히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 대상별 모집·발굴 강화

서비스 내실화 노력과 함께, 청년, 경력단절여성, 장기실업자, 저소득층 등 지원대상별 특성에 맞는 홍보접점 확대 및 콘텐츠를 강화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 챗봇(취업이룸)을 통한 24시간 실시간 상담, 비대면 상담 채널 확대(관계부처 협업) 등 적극적인 모집:발굴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26 ___ **27** 2022. March **vol.562**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절차, 참여자의 구직노력 의무 등 관련 교육동영상 의무 수강 등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2년부터 새롭게 스타트!

올해부터 중소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월 최대 80만 원, 1년간 최대 9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도약장려금 사업은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게 월 최대 80만 원씩 최장 1년간(최대 96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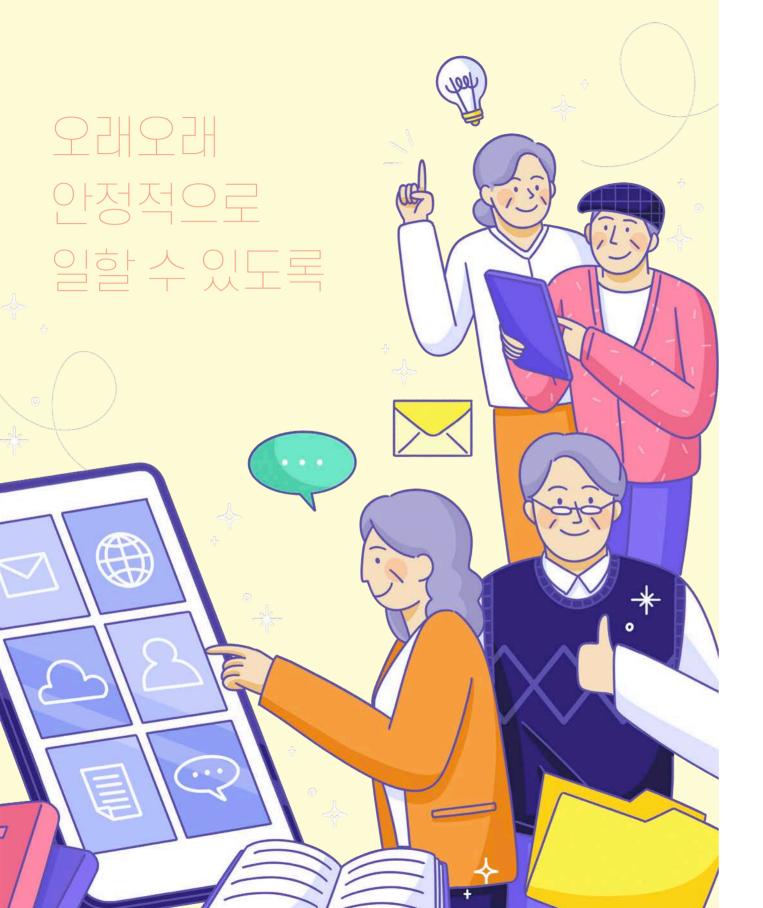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원대상 기업 요건	지원대상 청년 요건
원칙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15~34세 청년 + 6개월 이상 실업상태
특례	5인 미만 ▲성장유망업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 ▲미래유망기업 등	실업기간 6개월 미만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취 참여(IAP 수료), ▲폐자영업 청년 등

- ㆍ 지원 대상: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ㆍ 지원 요건: '22년에 채용,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준수, 인위적 감원 금지 등
- · 지원 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80만 원, 연 최대 960만 원
- ㆍ 지원 규모: 14만 명.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 지원 한도: 30명 (수도권: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50%, 비수도권: 100%)
- ・ 지원 절차: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기업) 및 승인(운영기관) → 청년 채용 및 6개월 고용유지(기업) → 도약장려금 지급 신청(기업) 및 지급(고용센터)
- · 참여 신청: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한 후, 참여 신청
-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그 외에도 고용노동부는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애로청년과 채용을 원하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도약장려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워크넷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특별채용관'을 운영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 일채움공제제도 등 다른 일자리사업과도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청년들, 2022년에 더 힘내 봅시다! 여러분의 도약을 고용노동부가 응원합니다.

28 ___ **29** 2022. March **vol.562**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령자 고용지원금'

오래오래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급격한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하여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고령자가 은퇴희망 연령까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 지원대상 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대기업 등은 제외

▶ 지원 요건:

- 사업적용기간이 1년이상 일 것
- ☞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직전 분기 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한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 수 보다 증가할 것
- ☞ 월평균 고령자 수: 1년 넘게 재직중인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 + 지원금 신청분기에 신규 채용하여 1년 초과 근로계약한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

▶ 지원 수준: 분기별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30만원씩 최대 2년간 지원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범위 내 최대 30명 한도 지원(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

▶ 신청 방법:

- 분기별 신청으로 해당분기 말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 고용센터(또는 온라인 www.ei.go.kr)에 신청
- 제출서류 (지원금신청서, 만 60세이상 근로자명부, 신규입사자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 문의처: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 또는 고객상담센터(1350)

이제는 신중년 전성시대! 고용노동부는 신중년에게 적합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신중년의 멋진 인생2막 고용노동부가 함께 하겠습니다.

청년, 여성, 중장년, 장애인, 외국인 등 대상자별 다양한 취업지원정책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30 ___ **31** 2022. March **vol.562**



우리 함께 희망찬 내일로

각자의 방식과 속도로!

수명이 늘어나고 더불어 노동주기도 길어져서 모두가 내일이 불안한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 같은 고민을 안고 있으니까요. 각자의 방식과 속도로 희망찬 내일을 만들어가고 있는 바로 우리 곁의 사람들 이야기를 들려 드릴게요. **내일로 붐업 + 뉴 스타트** 글 이지혜 | **사진** 이도영

오답노트가 교과서가 되기까지

임영미 전직지원 컨설턴트 으로

누구나 인생의 후반기, 새로운 시작을 앞둔 사람이라면 설렘과 두려움이 공존합니다. 임영미 씨 역시 그랬습니다. 사실은 누구보다 거친 고난과 실패, 방황을 겪었던 그입니다. 임영미 씨는 이제 자신의 인생 오답노트를 교두보 삼아 누군가를 안내합니다. 전직지원 컨설턴트로서 일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고용노동부와의 인연이 있었습니다.



* 본 촬영은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순탄한 시청 생활을 포기하고, 서울 진출을 위해 다시 공무원 시험에 도전했습니다. 결과는 또 합격. 그렇게 전남도청에서 일한 지 3년쯤 지났을 때 기적처럼 서울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일찍 알아버린 건강의 소중함

임영미 씨의 어머니는 어릴 적부터 자식들에게 "여성도 전문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분이었습니다. 그런 어머니 덕분에 대학 입학과 동시에 미래를 설계했습니다. 3학년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 졸업을 앞둔 4학년, 고향인 순천 시청에 9급 공무원으로 합격했습니다. 당시엔 동사무소였던 곳에서 등·초본을 떼는 일이 그가 맡은 첫 커리어였습니다.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사회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임영미 씨는 결혼하고 귀여운 아이 둘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임신 과정에서 임신중독증 이 생겨 둘째를 낳고 두 돌이 채 지나지 않아 신장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단순히 잠시 아프고 회복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장애인 등급을 판정받고, 후유 증으로 시력까지 잃어갔습니다. 설상가상 공황장애까지 겹쳐 새벽마다 병원 응급실로 달려갈 정도로 공포의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의 나이 겨우 서른셋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서울의 큰 병원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혈액 투석을 한 뒤부터 시력도 괜찮아 졌어요. 1년 뒤 가족에게 신장 이식을 받았죠. 지난 1월로 꼭 20년 됐어요."

이식 후 임영미 씨는 순천시청에서 일하며 서울의 병원을 주기적으로 다녔습니다. 하지만 매번 서울을 다녀오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비나 눈이라도 오면 비행기가 취소되기 일쑤였고, 3개월 전부터 잡아 놓은 의사와의 회진은 멀리 사는 그에게 스트레스로 다가왔습니다. 처음으로 "서울에 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순탄한 시청 생활을 포기하고, 서울 진출을 위해 다시 공무원 시험에 도전했습니다. 결과는 또 합격. 그렇게 전남도청에서 일한 지 3년쯤 지났을 때 기적처럼 서울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34 ___ **35** 2022. March **vol.562**

직업상담사나 전직지원 컨설턴트를 희망하는 사람은 많지만,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누구나 일 할 수는 없어요. 관련 경험과 경력을 쌓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해요. 입문을 위해서는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공부가 미리 되어야 해요. 결국 교육과정을 받는 것이 중요하죠.



목표를 향한 거침없는 도전

얼마나 간절한 바람이어야 이루어지는 걸까요? 서울에 자리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 사정리 위원회'에서 임영미 씨를 호출한 것입니다. 운명처럼 서울로 파견돼 꿈만 같은 1년을 보냅니다. 하지만 파견은 3년이라는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임영미 씨는 최대한 빨리 서울에 자리를 잡기 위해 고민 끝에 1:1 인사교류를 신청합니다. 그렇게 2009년 9월, 고용노동부 서울 동부고용센터에서 근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저는 공무원으로서 탄탄대로를 걷거나, 승진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다만 수평 전환을 위해 노력했고, 그것이 이뤄졌던 것이죠. 이후 6년간 열심히 일했다고 자부해요. 기획, 교육, 강의, 사내 CS 리더 등의 다양한 일을 하다 2015년 명예퇴직했어요. 제2의 인생을 시작하고 싶었죠."

하지만 임영미 씨는 이 시점을 두고 "쉬어야 할 타이밍에 쉬지 않았다"고 평가합니다. 앞만 보고 달려온 자신을 위해 잠시 내려 두고 다음 스텝을 준비했어야 하는데 말이죠.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두가 반대한 프렌차이즈 편집숍을 오픈했고, 딱 8개월이 지난 후 정신이 번쩍 듭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잘하는 건 이게 아닌데."

그렇게 8개월간의 방황을 마치고 편집숍을 폐업한 임영미 씨는 더는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일한 임영미 씨만큼 고용노동부의 교육 프로그램을 잘 아는 사람은 없었을 테니까요. 그는 자신의 장기를 살려 컨설턴트로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있는 청년 취업 지원 강사 양성 과정을 비롯해 NCS 취업 역량 강사 양성 과정, 취업희망 강사 양성 과정, 직업심리검사 전문가 과정 등의 다양한 교육을 수료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워크넷이 도운 뉴스타트

여성 공무원이 퇴직 후 다른 직종으로 전직한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임영미 씨가 7년째 전직지원 컨설턴트로서 일할 수 있는 배경에는 집중적인 재교육과 인생 재설계를 위한 꾸준한 노력, 그리고 본인의 실패와 경험이 있었습니다.

"직업상담사나 전직지원 컨설턴트를 희망하는 사람은 많지만,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누구나 일 할 수는 없어요. 관련 경험과 경력을 쌓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해요. 입문을 위해서는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공부가 미리 되어야 해요. 결국 교육과정을 받는 것이 중요하죠. 저는 지금 대기업 임원만을 대상으로 전직지원 컨설팅을 하고 있지만, 퇴근 후에도 생애설계 세미나나 온라인 교육을 성실하게 들어요."

무엇보다 임영미 씨가 적극 이용했던 것은 고용노동부의 취업플랫폼 '워크넷'이었습니다.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을 했고 취직도 했습니다. 1인 기업으로 법인을 냈지만, 곧바로 코로나19가 터지고 힘들어 하던 때에도 워크넷을 통해 대학교 취업컨설턴트로 근무



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 후반전에는 늘 워크넷이 함께했습니다.

"워크넷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기능이 있어요. 구직등록은 물론 성인직업 심리검사를 통해 본인을 다시 돌아볼 수도 있죠. 퇴직 후 무언가 해보고 싶다면 고용센터 에 가서 상담을 미리 받아보는 것도 추천해요. 직업전환을 위한 끊임없는 학습을 해야 하 고, 고용노동부에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이를 실현할 수 있어요."

임영미 씨는 본인의 인생을 '오답노트'로 표현합니다. 전직지원 컨설턴트로서 탄탄한 커리어를 쌓고 있는 데는, 그 역시 똑같은 방황과 고민을 겪었기에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험난한 과정을 이겨내 온 그의 오답노트는 인생 후반전의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자리를 생각하면 퇴직 후 할 수 있는 일은 많이 없습니다. 자존심을 내세우는 분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직책과 자리를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있는 직무만을 보고 준비하세요. 고령자 재취업이 쉽진 않지만, 그럼에도 겸손한 자세로 젊은 사람들과 소통하다 보면 반드시 기회는 올 겁니다."

36 ___ **37** 2022. March **vol.562**

내일로 붐입 + 청년꿈터 글 이지혜 | **사진** 이도영

꿈을 위한 레이어드

국민내일배움카드 우수사례자 정선아 씨





이른 나이지만 직업 전향을 꿈꾸는 청년들은 남들과 비교하는 마음에 초초함을 갖기 쉽습니다. 정선아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큰 결심 끝에 유학을 통한 직업 전향을 꿈꿨던 정선아 씨는 코로나19의 악재에 막혀 제대로 펼쳐 보지도 못하고 좌절할 뻔했지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디자이너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됐습니다.



중국어학과를 졸업하고 영사관으로

부산에서 나고 자란 정선아 씨는 중국어를 전공하고 부산에 자리한 중국영사관에서 첫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대학교 생활 중에도 중국정부의 초청 장학생으로 선발돼 산동성대학교에서 어학연수를 다녀올 정도로 뛰어난 학생이었죠. 2016년 졸업을 하고 2년 7개월간 영사관에서 중국인 행적 업무와 외국인 비자 심사 업무를 수행했는데요, 이것이 그녀의 첫 커리였습니다.

해운대관광시설사업소에서 관광 통역을 할 정도 로 중국어에 능통했던 그였지만, 사회 생활을 하 면 할수록 디자인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 니다. 대학교 때도 디자인 관련 수업을 듣기도 했 지만, 본격적인 전공자가 아닌 만큼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영사관에서 일하면서 제 전공인 중국어로 할 수 있는 일은 국가적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체 감할 수 있었어요. 좀 더 안정적이면서 제가 예전 부터 하고 싶었던 디자인으로 전향하고 싶었어요. 디자인 공부도 하고 공모전 수상도 했지만 번 번이 면접에서 떨어지자 본격적으로 배우고 싶었어요. 고민 끝에 캐나다 유학을 떠나 디자인 공부를 하기로 결심한 뒤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리곤 코로나가 터졌죠."

디자인의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

절망적이었습니다. 유학의 기회 또한 잠정적으로 중단돼 버렸죠. '나는 안 되는 걸까?'하는 부정적

38 ___ **39** 2022. March **vol.562**

직업을 전향하기로 했다면 진짜 전공자만큼의 지식과 실력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수업에서 배운 실습 예제를 집에서 반복해서 더 열심히 복습했더니 처음에 하나도 몰랐던 부분들이 점차 윤곽이 잡히더라고요.



인 생각에도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디자인을 하고 싶다는 열망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시기, 우연히 사촌 언니가 국민내일배움카드 로 디자인 수업을 들어보는 건 어떻겠냐고 조언 을 해주었습니다. 언니 역시 과거에 국민내일배 움카드를 통해 수업을 듣고 취업해 경력을 잘 쌓 아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언니의 모습에 신뢰감 이 생겨 UI/UX 디자인 수업을 듣게 됐습니다. 코로 나의 공포가 극에 달하던 2020년 8월이었습니다. 선아 씨는 지금껏 그래왔듯 성실하게 수업을 들 었습니다. UI/UX디자인 수업의 수강생 대부분은 디자인 관련 전공을 했거나 관련 분야의 경험을 가진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 던 선아 씨는 처음에 겁이 많이 났습니다. '같이 수업을 듣는 사람들을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첫 수업에 들어갔을 때 "수료할 때는 전공자와 비전공자의 차이가 크 게 없다"는 강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게 됐습니다.

UI/UX디자인 수업에서 포토샵, 일러스트 뿐만 아니라, IT 업종에서 선호되는 코딩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선아 씨의 우려는 코딩에서 현실이 되는 듯했습니다. 처음 코딩을 접한 선아 씨는 코드하나에 30분을 잡아먹거나, 작은 효과를 위해 3~4시간씩 씨름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직업을 전향하기로 했다면 진짜 전공자만큼의 지식과 실력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수업 에서 배운 실습 예제를 집에서 반복해서 더 열심 히 복습했더니 처음에 하나도 몰랐던 부분들이 점차 윤곽이 잡히더라고요. 수강이 끝나 갈 때쯤 엔 다른 수강생들보다 조금씩 앞서기 시작했어 요. 결국 바로 실무에 투입될 정도의 코딩 실력과 디자인 실력을 갖추게 됐어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이뤄낸 목표

2021년 3월 초, 드디어 수료를 하고 본격적으로 취업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했던 일이나 중국어 전공과 관련 있는 디자인 직무를 찾는 것이 선아 씨의 목표였습니다. 무엇보다 하고 싶은일이 많고 배우고 싶은 것들이 많아 부산에서일을 구하는 것 보다 문화적, 교육적 혜택을 더 많이받을 수 있는 서울로 가길 원했습니다. 그렇게 꼬박하 달을 찾았습니다.

"어느 날 서울에 있는 한 회사에서 중국어를 하는 디자이너를 구하고 있다는 공고를 발견했습니다. 이거다 싶었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직무 조건에 '경력 2년 이상'을 찾고 있었거든요. 고민이되자, 우선 학원의 취업 상담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선생님께서 직무내용을 보시더니 아주 전문적인 기술을 요구하는 것 같지는 않다며 일단 지원해 보자고 하셨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자소서를 만들고 서류를 넣었죠. 다음날 연락이 왔어요. 면접을 보러 오라고."

날아갈 듯 기뻤습니다. 하지만 경력자를 찾았던 만큼 신입 그것도 비전공자인 선아 씨는 그냥 면접을 보러 가면 불리할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이 회사에 들어가면 나는 어떤 디자인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서울로 갑니다. 면접관들은 그녀의 준비에 놀랐고, 면접 이 끝난 뒤 그의 포트폴리오를 따로 가져가도 되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결과는요? 물론 합격이었죠. 이렇게 철저히 준비된 선아 씨 말고 그 자리에 마땅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후 선아 씨는 서울에 혼자 올라와 1년이 가까이 한국의 제품을 중국에 판매하는 회사에서 디자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학원에서 배운 내용을 바 탕으로 실무를 하는 데 전혀 문제없습니다. 심지 어 가끔 일이 막힐 때, 그 때 공부했던 자료를 들 춰보며 해결해 나가곤 합니다. 선아 씨의 목표는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목표를 향해 차곡차곡 인 생의 포트폴리오를 쌓고 있습니다.

"경험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모든 경험을 차곡차곡 쌓아 레이어드 하듯 내일의 더 좋은 나 를 만들어 가면 돼요."

〈자격증 취득자's 꿀팁〉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막연함 두려움 속에서 혼자가 아니란 것을 알게 됐습니다. 질문하는 저를 끝까지 살펴주는 강사 선생님이 있었고, 언제든 문을 두드리면 내 일처럼 도와주는 상담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전공자가 아니라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선생님은 모든 학생을 아무것도 모른다는 전제로 수업을 하십니다. 절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또 수업이 끝나기 2주 전부터는 자소서를 만들며 본격적인 취업 준비를 시작하는데요. 조금 더 빨리 하는 걸 추천해요. 훨씬 적합하고 좋은 자소서로 바꾸는 데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줄 거예요.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아요.

40 41 2022, March **vol.562**

내**일로 붐입 + 굿&굿 오피스** 글 이지혜 | **사**진 이도영

마음을 어루만지는 노사 문화 우수기업

휴넥트

우리 사회가 인정하는 강도 높은 노동의 카테고리엔 언제나 콜센터 직원이 있습니다. 누구나 콜센터에서 일한다고 하면 "힘들겠다", "스트레스 많이 받겠다"는 위로를 건넵니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15년째 인정받는 휴넥트의 직원이라면, 그런 위로엔 웃음으로 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선 괜찮아요"라고요. 직원을 위하고 그들의 감정을 어루만지는 경영으로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선정된 휴넥트 부산 본사를 찾았습니다.





이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대부분 비정규직이라고 오인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휴넥트의 3700여 명의 직원 중 99%는 정규직입니다. 오랜 시간 저희가 가꾸고 함께해 온 훌륭한 인재들입니다.



외주용역 아닌 산업 이끌어가는 종사자

부산에 자리한 휴넥트는 국내 최초로 콜센 터 시스템을 도입해 통신, 금융, 제조, 유 통, 공공기관 등 다양한 업종의 컨텍센터 구축과 운영을 하는 회사입니다.

1992년에 설립한 부산·경남 지방의 통신 사업자 부일이동통신으로 시작해 빠른 시간에 성장했으나, 삐삐로 대표되던 무선호출 산업이 몇 년 가지 않아 하락하고 기업이 쇠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당시 총무인사팀 소속이던 성승모 대표는 고민 끝에 1999년 150여명의 직원을 데리고 부일정보링크라는 이름으로 분사를 합니다.이후 부일정보링크는 20여년간 전국 규모의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기업으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리곤 지난 2020년 전국구 이미지로 거듭나기위해휴넥트로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현재 롯데홈쇼핑을 비롯해 NS홈쇼핑, 국민건강관

리공단, 부산은행, 농협, 등 56개 현장에 총 3700여 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습니다. 총무인사팀에서 20여 년간 일했던 성승모 대표는 그 누구보다 직원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 경영을 펼쳤습니다. 직원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감성 경영'을 비롯해 직원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다양한 회사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덕분에 휴넥트는 아웃소싱 업계 최초로 15년간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선정됐습니다.

"저는 우리의 일을 아웃소싱, 외주용역, 사업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휴넥트를 콜센터 산업을 이끌어가는 회사라고 생각하고 지식정보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대합니다. 이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대부분 비정규직이라고 오인 하지만우리는 다릅니다. 휴넥트의 3700여 명의직원 중 99%는 정규직입니다. 오랜 시간저희가 가꾸고 함께해 온 훌륭한 인재들입니다."

* 본 촬영은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행되었습니다

42 ____ **43** 2022. March **vol.562**



휴넥트에는 장기 근속자가 많으면서 이직률은 낮습니다. 현장마다 별도로 노사협의회를 운영하는데요. 관리자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관리자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귀기울여 듣고 적용해 직원들의 근로의욕을 높인 덕분이죠.



직원 참여 위주의 프로그램과7 상생 방안

직원들이 많고 집단 근무 체계가 대부분인 만큼 휴넥트는 직원들의 감정에 가장 많은 신경을 씁니다. 한 곳에 모여 감정 노동을 하다 보면 갈등이나 대립이 따라오기 마련 입니다. 휴넥트는 주기적으로 심리치료사 나 미술치료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들 의 스트레스를 다스립니다. 지역의 복지센 터와 협업해 정기적으로 리본공예, 네일아 트 등 직원 참여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 영 중입니다. 휴넥트라는 사명도 사내 공 모전을 통했습니다. 대상부터 참가상까지 마련해 전체 참가자들에게 상금과 상품을 지급했는데, 자연스레 많은 직원들이 참가 하고 즐기게 되었죠. 당연히 대상 당선작 이 현재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야구도시 부산에 연고한 기업 답게 코로나19 이전에는 직원들끼리 야구장을 가거나 회식을 하는 등 자주 모였지만, 코로나19 이후에는 회식이나 외부 활동을 최대한 자 제하는 대신 예산을 아끼지 않고 직원들에 게 나눕니다. 나누는 방식도 현금이나 선 물, 상품권 등을 직원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매년 두 번씩 전국의 관리자를 모두 모아 진행했던 1박 2일 워크숍도 2년이 넘도록 못하고 있지만, 때마다 참가인원에게 예산을 모두 나누었습니다.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며 노사가 함께 상생하고자 하는 휴 넥트만의 노력입니다.

노사 협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감성경영

덕분에 휴넥트에는 장기 근속자가 많으면서 이직률은 낮습니다. 현장마다 별도로노사협의회를 운영하는데요. 관리자들이현장의 목소리를 귀기울여 듣고 적용해 직원들의 근로의욕을 높인 덕분이죠. 이런이유로 고충이나 건의사항이 노사협의회에서 바로 해결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현장 고충의 세세한 부분까지 전달돼 경영진이나 본사의 현장 이해도가 높아요.최근엔 직원의 고충을 제도적으로 해결하기위해 '모바일채널 고충처리위원회'를만들었어요. 직원들은 쉽게 접근할수 있는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고충을 털어놓고, 관리자는 신속한 피드백을 줄수 있게 끔했습니다."

직원들은 든든한 휴넥트의 울타리 안에서 일 합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져 급전이 필요한 직원들에게 1%대의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생활대출제도와 갑작스런 상황으로 인한 재정악화 직원을 대상으로 1인 100만 원을 무상 지원하는 긴급구호자금정책은 휴넥트가 직원들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오래 다닌 한 직원이 있었어요. 어느 날 예고도 없이 불쑥 그만두겠다고 하기에 자초지종을 물었죠. 갑상선암에 걸려 치료에

전념해야 해서 회사를 다니기가 힘들 것 같다고 하더군요. 저는 오랫동안 휴넥트의 발전을 돕고 지켜줬던 그 직원을 그냥 보낼 수 없었습니다. 저 역시 직원을 보호해야 한다고 느꼈죠. 동료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치료 잘 받고 오라고 휴직서를 써줬습니다. 적지만 치료비도 지원하고요. 지금은 그 누 구보다 건강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연 200~300명의 휴넥트 직원들은 팬데 믹 직전까지 홍콩, 마카오, 일본, 도쿄 등으로 해외 연수를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하늘길이 막힌 요즘엔 또 당연히 대체 포상을 진행했죠. 이쯤 되니 휴넥트 다운 노사 상생이 무엇인지 알 것 같습니다.

휴넥트는 여성이 90%가 넘는 여성 친화 기업입니다. 임산부를 대상으로는 유연근 무제를 시행하고, 보건소와 문화센터 마사 지 강좌 등 임산부 직원의 삶의 질을 도울 수 있는 '엄마행복 아기건강' 프로그램도 진행합니다. 출산 시 출산 축하금이나 출산 용품 선물은 기본 옵션입니다. 산전휴가를 실시할 경우 육아휴직까지 자동으로 연결 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일찍이 구축했고, 업 무 복귀를 희망할 때에는 언제든 100% 복 직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이런 배경으로 휴넥트는 15년간 노사문화 우수기업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2021년에는 근무혁신 우수기업으 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휴넥트의 올 해 목표는 직원들이 건강하게 코로나19시대를 해쳐 나가는 것입니다. 건강이 최우선 되지 않으면,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자연스럽게 업무능률도 낮아져 회사는 발전을 멈추죠. 직원이 건강하고 행복한 것이 휴넥트가 발전하는 길입니다"



44 ___ **45** 2022. March **vol.562**

내일로 불업 + 더불어 세상 글 이지혜 | 사진 이도영 모든 아이들의 장난감을 위하여 코끼리 공장

누구나 어릴 적 아름다운 추억이 가득 담긴 장난감 하나쯤 가지고 있었죠. 그 장난감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코끼리 공장은 버려지거나 고장난 장난감을 기부 받아 수리하고 소독한 뒤 취약계층에 전달하는 선순환 구조를 실천하는 기업입니다. 언젠가는 기억에 없어지는 장난감이 또 다른 아이들에게 새로운 추억이 되길 바라면서요.



수거하거나 기부 받은 장난감의 양은 일주일에 10톤이 넘습니다. 이 중 70%가 재사용 될 수 있을 만큼 멀쩡합니다. 나머지 30%의 못 쓰는 장난감은 해체한 뒤 재생 소재로 이용되는데, 이렇게 얻은 소재는 타일이나 조명, 가구로 재탄생합니다.

장난감의 선순환을 실현하다

요즘은 대형마트나 문구점, 편의점만 가도 장난감이 넘쳐납니다. 아이들은 손 쉽게 장난감을 가질 수 있죠. 아이가 사는 집엔 방 하나가 장난감으로 가득 찬 모습을 보는 건 흔한 일이 되었어요. 아이가 성장한 뒤 혹은 고장나 더 이상 쓸모 없게 된 장난 감은 대수롭지 않게 버려집니다. 대부분 플라스틱으로 만든 장난감은 환경을 헤치게 되죠.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 시스템에 끊임없이 물음표를 던지고 선순환의 가치를 지켜나가고자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코끼리 공장입니다.

울산시 중구 성안동에는 자리한 코끼리 공 장은 아침부터 분주합니다. 직원들은 아이 들과 손을 잡고 온 가족 손님들의 장난감을 기부 받고, 환경교육과 더불어 폐 장난감을 이용한 수공예 작품 체험을 지도합니다. 이 가족 손님들은 뜻깊은 수공예 클래스를 듣고, 장난감을 기부하는 대신 새롭게 고 쳐진 장난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한편에선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기부 받은

한편에선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기부 받은 어마어마한 양의 장난감을 소독한 뒤 사용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분류합니다. 다른 직원들은 분류된 사용 가능한 장난감을 고치고 사용 불가능한 장난감은 해체하는 작업을 합니다. 또 다른 직원들은 유치원이나 보육원 같은 단체로 가 기부하는 장난감을 수거해 옵니다. 이렇게 수거하거나 기부 받은 장난감의 양은 일주일에 10톤이 넘습니다. 이 중 70%가 재사용될 수 있을 만큼 멀쩡합니다. 나머지 30%의 못쓰는 장난감은 해체한 뒤 재생소재로 이용되는데, 이렇게 얻은 소재는 타일이나 조명, 가구로 재탄생합니다.

46 ____ **47** 2022. March **vol.562**



위생관리·소독수 판매로 찾은 활로

코끼리 공장은 10년 전, 이채진 대표가 장 난감 봉사단 '두루별이'를 만들며 시작됩 니다. 아동학과 경영학을 복수 전공하고 울산시 육아종합지원선테와 울산 남구육 아종합지원센터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이 채진 대표는 아이들이 만지고 놀다가 고장 나 버려지는 너무 많은 장난감들이 눈에 밟혔습니다. "봉사 단체를 만들어서 지역 의 장난감이라도 고쳐주자"라고 시작했던 두루별이는 3년 만에 사회적 기업 코끼리 공장으로 재탄생합니다.

"얼마 전까지도 저는 이 일을 회사가 아닌 봉사라고 말해왔어요. 그만큼 인건비가 나 오기 힘든 구조였죠. 장난감 선순환도 좋 지만, 조금이라도 돈을 벌어 인력을 유지 하기 위해선 수익 구조를 만들어야 했어 요. 그 때부터 '아동기관 관리 서비스'를 시 작했어요. 아동기관에 가서 장난감을 고치 고 수거해오면서 그 기관의 위생관리를 함 께 해주는 것이죠."

아동기관 관리 서비스를 시작한 것은 8년 째지만, 코로나19가 터지고 오히려 계약이 늘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집 단 생활을 하는 곳은 예전부터 전염병에 취약했지만, 최근 들어 경각심이 일고 있는

덕분이었죠. 소독서비스와 위생 관리를 통해 장난감 기부를 이끌어내는 기능도 합니다. 이렇게 고정적으로 수익이 들어오면 그돈으로 예산이 부족해 위생 관리를 못하는아동복지 기관에 무상으로 서비스를 해줍니다. 그야말로 남는 것 없는 장사를 하는셈이죠.

7년 전부터는 소독수 제조업도 하고 있습니다. 기부 받은 장난감을 소독하기 위해 소독약을 구입해 뿌렸는데, 안전성을 따지 다보니 고가의 소독약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출이 너무 커 고민하던 찰나, 마침 현대차그룹을 통해 받은 1억여 원의 지원 금으로 소독수 제조 기계를 구입합니다.

이후 직접 만든 소독수를 관리하는 기관에 판매했습니다. 몇 해 전 가습기 살균제 사 건이 터졌을 때 식품의약품안정청 KFDA 와 미국 FDA에서 식품첨가물 인증을 받은 코끼리 공장의 소독수 판매량이 급증했습 니다.

최근 코로나19로 또 한번 입소문을 타며 수익이 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증가한 수익의 절반 이상을 예산이 부족해 소독수 를 못 사는 기관에 또다시 나눕니다. 코끼 리 공장은 항상 수익의 절반 이상을 나누 는 것이 원칙입니다.

얼마 전까지도 저는 이 일을 회사가 아닌 봉사라고 말해왔어요. 그만큼 인건비가 나오기 힘든 구조였죠. 장난감 선순환도 좋지만, 조금이라도 돈을 벌어 인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수익 구조를 만들어야 했어요. 그 때부터 '아동기관 관리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아동기관에 가서 장난감을 고치고 수거해오면서 그 기관의 위생관리를 함께 해주는 것이죠.









진정성 있는 사업과 파트너십과

"코끼리 공장의 존재가 알려지며, 택배로 장난감을 기부하는 개인도 늘었습니다. 초 반에는 택배비를 회사에서 부담했지만, 하 루에 200박스 이상 받다 보니 택배비가 부 담스러워졌어요. 결국 양해를 구하고 기부 자 부담으로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많이 와요. 죄송한 마음이 많죠. 저 희 입장에선 개인 참여를 더 많이 끌어내 기 위해 택배회사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하 는 마음이예요"

나눔의 가치를 지키며 한 자리에서 10년 간 노력하다 보니, 자연스레 코끼리 공장 의 진정성을 알아보는 곳들이 생겨났습니 다. 이채진 대표는 기부를 받거나 장난감 을 파는 것이 아닌 협력구조를 통해 회사를 유지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10여 년간 기업들이 EGS를 바라보는 참여 의지가 많이 바뀌었고 그에 따라 시장경제의 흐름도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진정성 있는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기업들이 늘어나며 코끼리 공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과 협력해 비영리 단체 '그린 무브 공작소'를 설립했고, 근로복지공단에 서 전국에 있는 임직원 가정의 장난감 8,000개를 기부하고 소독수를 구입해 취 약계층에 나누었습니다. 점점 후원의 형태 가 아닌 사업 모델의 형태로 바뀌고 있어 요. 지금까지 우리는 민간시장을 대상으로 살아남았고 운 좋게도 수익 사업을 내고 있었지만, 이제는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통 해 사업을 확장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요."

코끼리 공장의 목표는 10년째 바뀌지 않습니다. 장난감 순환모델을 전국 규모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채진 대표는 모두가 알아줄 코끼리 공장의 가치를 위해 기초 공사를 단단하게 다지고자 합니다. 언젠가 전국에서 쏟아질 많은 양의 장난감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고민을 멈추지 않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저 소외된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나누고 싶고, 그것이 코끼리 공장의 가치이기 때 문입니다.

48 ____ **49** 2022. March **vol.562**

내일로 붐엽 + 고용노동 뉴스 글 편집실

MOEL News

1

제1차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2022년 실태조사 계획 및 재난종료 후 이행평가 계획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15일 「제1차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위원장: 고용노동부장관)」를 개최하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운영계획, 지원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2022년 실태조사 계획, 재난종료 후 이행평가 계획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지원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대규모 재난 시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기능 유지를 위한 필수업무와 종사자의 범위를 정하고, 지원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하는 범정부 협력체계입니다.

지원위원회는 전문가, 노사단체,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들어 다양한 재난 중 올해 우선 사전 실태조사를 추진할 재난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빈도와 가능성이 높은 '태풍', '홍수', '산불'의 4개 분야를 선정하고 앞으로도 발생빈도와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범정부 대 응이 필요한 재난들을 매년 추가 실태 조사하여 향후 재난이 발생한 경우 차질 없는 지원계 획이 수립되도록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안경덕 장관은 재난 등 상황종료 후 실시하는 지원계획과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결과가 정부업무평가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도 전했습니다.

한편 지난 2020년 12월 14일 수립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습니다. 안경덕 장관은 "재난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고 예측도 쉽지 않지만, 필수업무종사자법 시행으로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진 만큼, 정부는 평상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지원계획이 마련되도록 하겠다"라면서, 이번 실태조사가 그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촘촘한 실태조사를 통해 재난 발생 시 적기에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지역단위에서 자치단체의 역할도 중요한 만큼, 필수업무종사자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관계부처는 물론 자치단체와도 적극적인 소통하는 협력체계를 마련해 나갈 것"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 *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 범위,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이행평가 등(법 제7조)
- * 고용노동부장관은 재난상황 종료 시 지원계획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정부업무평가·공공기관 경영 평가 등에 반영하도록 요청(법 제12·14조)





50 ___ 51 2022. March vol.562

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2022년 산업안전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7일 2022년 「2022년 산업안전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안착과 사망사고 획기적 감축을 목표로 다양한 안전관리 주 체들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산업안전보건감독의 예방 효과성을 높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 위함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고위험 사업장 특별관리

중대재해처벌은 기업이 사전에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종사자의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50인(억) 이상 사업 중 최근 5년간 재해 현황, 위험기계 보유 등 다양한 유해·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위험 사업장을 선정하고 집중관리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집중관리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노동관서―산업안전보건공단―민간 재해예방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다양한 형태의 예방 활동을 상시 추진합니다. 이 과정에서 안전관리가 불량한 사업장이 발견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른 엄정한 감독을 실시하여 기업 단위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이행에 필요한 근본적인 개선 조치를 이끌어 낼 계획입니다.

② 사망사고 핵심 위엄요인 집중 감독

추락방지 조치, 끼임방지 조치, 안전보호구 지급 및 착용은 소규모 사업장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하는 현장점검의 날을 지속 추진하고 현장 이행력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2021년 하반기 12차례 현장점검의 날을 통해 2만 6424개 사업장을 일제 점검했으며, 1만 6718개소(63.3%)를 적발해 시정을 완료했습니다. 이는 사망사고 감축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점검대상을 50인(억) 미만 건설·제조업 위주에서 위험이 높은 100인(120억) 미만 건설·제조업 및 기타 고위험업종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점검방식도 '점검'과 '감독'을 병행하며 패트롤 점검(산업안전보건공단) 결과 불량사업장에 대한 연계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자체, 민간 재해예방기관과의 연계감독도 확대되며 지방노동청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지역 밀착 중점감독도 시행됩니다.

③ 본사·원청 중심 예방 감독 강화

본사·원청 감독을 강화해 현장의 안전관리 취약요인을 근원적으로 개선하며 처벌 목적에 치우쳐 있는 현재 사후감독(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을 「중대재해 다발 기업 대상 예방감 독」으로 개편합니다. 특별감독은 특정 사업장에서 동시에 2명 이상 사망, 혹은 최근 1년간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또는 작업중지 명령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실시하되 감독대상을 기업 단위로 확대하여 특별감독 결과가 해당 기업 소속 모든 현장에서 이행되도록 함계획입니다.

④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지원

일회성 감독이 아닌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감독이 될 수 있도록 감독의 질을 높입니다. 감독 시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체제 (법 제2장제1절)를 확인하고, 현장의 안전조치 이행여부와 관리체제별 직무 이행 현황을 연계 확인합니다. 취약한 위험요인이 실제 개선될 수 있도록 감독결과는 강평·면담을 통해 대표이사·경영책임자 등에게 직접 설명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 처벌가능성 여부도 안내하며 감독결과를 명확히 인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결과 및 과태료는 본사 주소지로 팩스 또는 우편 송달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업장의 전반적인 안전수준이 취약한 경우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명령,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실시하여 감독 종료 이후에도 기업 스스로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지속 높여나 가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동종·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기획형 감독 중심으로 감독 결과를 언론에 공개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고용 노동부장관에게 제출(법 제11조제4항)

52 ___ 53 2022. March vol.562

3

신한금융희망재단을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 14번째 단체로 인증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10일 신한금융희망재단을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14번째 단체로 인증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신한금융재 단의 청년고용 지원 프로그램 소개, 프로그램 수료 청년의 소감 시 청,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 가입증서 수여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번 신한금융희망재단 의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 가입은 금융권에서 첫 가입 사례입니다.

신한금융희망재단은 '신한 글로벌 영 챌린저'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100여 명을 대상으로 언어교육, 이문화 교육, 전문직무교육 등을 제공하고 현지에서의 취업 연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2019년 이후 프로그램을 수료한 184명의 청년 가운데 133명은 베트남, 일본, 헝가리, 폴란드 등 해외에서 취업에 성공했으며 현재 2021년 3기 40여 명은 해외연수 중입니다.

또한, '신한 스퀘어브릿지 유스' 프로그램을 통해 스타트업 취업에 관심이 있는 특성화고 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실무교육 및 취업역량 강화 교육, 스타트업 취업 연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지원 대상이 대학 졸업생 등 청년 구직자까지 연간 150명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청년이 필요한 교육을 받고 스타트업에서 본인의 꿈을 펼쳐 나갈 기회를 가질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신한금융희망재단의 사례와 같이

기업 주도의 직무훈련, 일경험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신기술 분야에서는 민간의 혁신적인 훈련과정을 지원하는 'K-디지털 트레이 닝' 사업 규모를 올해 3249억 원(전년대비 1958억 원 증대)으로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 도 일경험프로그램'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2.5만 명에게 대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의 직무체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가 금융권을 비롯한 경영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참여 기업·단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정부와 기업이 협업하여 청년이 희망하는 직무역량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활동으로 삼성전자, 포스코, 신한금융희망재단 등 14개 기업·단체가 멤버십으로 참여





54 ___ 55 2022. March vol.562

4

2022년 상반기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과정 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디지털 기초지식이 전혀 없는 청년, 중장년 구직자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과정의 2022년 상반기 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이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청년, 중장년 구직자에게 데이터 분석, 코딩, 메타버스 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 기초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것으로 국민 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한도 외 추가 지급되는 50만 원을 기초역량훈련 수강 시 사용할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1년부터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이라는 사업명으로 훈련과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은 14개 기관의 40개 과정을 신규로 공급해 기존에 운영 중인 과정에 더해 2022년 24개 기관, 113개 과정으로 대폭 확대될 전망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메타버스 등 새로운 훈련 분야를 발굴, 선도적으로 공급

새로 등장한 분야는 최근 화제가 되고 있으나 기존 원격과정에서는 공급이 어려웠던 메타버스 과정을 발굴했습니다. 그 외에도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사물인터넷(IoT), 3D 디자인 분야

등으로 과정을 다양화하는 동시에 비디지털 분야의 취업을 준비 중이거나 재직 중인 청년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직무 융합 과정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클래스101, 더에이아이랩 등 민간의 혁신 기관들이 대거 참여하기 때문에 훈련 참여를 원하는 수강생들 선택의 폭도보다 넓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② 대학의 비교과 포인트 제도와 연계, 청년에 대한 실질적 혜택 확대

전국의 대학과 협의를 통해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비교과 포인트 제도와 연계해 훈련 수료 청년층에 대한 혜택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비교과 포인트제도란 특강, 봉사활동 등 학생들의 비교과 활동 참여 실적을 포인트화하여 장학급 지급, 학점 부여 등과 연계하는 제도로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이수 시간도 포인트로 환산 가능한 제도입니다.

2021년 하반기부터 각 대학과 협의를 시작해 현재 45개 대학교가 제도 연계에 동참하기로 결정했으며 전국의 대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은 미니 프로젝트, 1:1 코드 리뷰, 게더타운을 통한 학습자 커뮤니티 운영 등 훈련과정에 따라 자유로운 실습 및 자기 주도 학습환경을 제공해 참여자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습 기회도 충분히 부여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현장 실무 경험이 없는 대학 재학생이나 비전공 구직자 등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류경희 직업능력정책국장은 "급속한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이제는 디지털 없이는 살 수 없는

류경희 직업능력정책국장은 "급속한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이제는 디지털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가 도래했고, 디지털 기초역량을 확보하는 것은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최우선의 생존 전략"이라면서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은 디지털이 어렵고 익숙하지 않았던 누구라도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과정 등을 다양하게 포함하고 있는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56 ___ 57 2022. March vol.562

5

직장 내 성희롱, 성차별 상담사례를 담은 고용평등상담실 우수사례집 발간 고용노동부는 2021년 고용평등상담실에서 지원한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관련 상담사례와 현장 인터뷰를 담은 우수사례집을 발간했습니다.

2021년에는 총 1만 1892건의 상담 지원으로 피해자 권리구제를 도모함과 함께, 사업장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등을 위한 체계적인 안내·지원으로 고용평등의식 확산을 통한 분쟁 사전 예방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사례집에는 ▲직장 내 성희롱 초기대응 우수 사례 ▲미온적인 사내 징계와 2차 피해에 대응한 사례 ▲지역단체와 연대하여 활동·대응한 사례 ▲임신·출산 후 겪은 불이익에 맞선 사례 등 총 12편을 수록했어요.

또한, 직장 내 성희롱 초기대응 등 대처 방법에 대한 고용평등상담실 상담사의 현장 인터 뷰와 함께, 심리상담 전문가가 전하는 성희롱 피해자들의 심리적인 문제, 심리치유의 중요 성 등 고용평등상담실에서 연계·지원하는 심리정서치유 프로그램 내용도 담았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고용평등상담실의 도움으로 성희롱 피해를 이겨낸 후 성폭력 전문 상담사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사례자("피해자 아픔 공감하는 조력자 될래요")의 이야기도 수록됐는 데요. 박성희 기획조정실장은 "고용평등상담실은 고용평등 의식 확산을 통한 성 평등한 노동 환경 조성과 함께, 현장 노동자들이 겪는 고충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데 구심점 역할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고용평등상담실이 피해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길 바라며, 성희롱·성차별 등 피해 고충이 있는 경우 주저하지 말고 고용평등상담실이나 고용노동부를 찾아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전국 21개소 고용평등상담실은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출산·육아휴직 등으로 불이익을 겪는 노동자들에게 법적 권리 안내와 문제 해결 방안 등을 자문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심리정서치유 프로그램을 연계·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습니다.

안경덕 장관은 "재난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고 예측도 쉽지 않지만, 필수업무종사자법 시행으로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진 만큼, 정부는 평상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재난 발생시 신속한 지원계획이 마련되도록 하겠다"라면서, 이번 실태조사가 그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촘촘한 실태조사를 통해 재난 발생시 적기에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지원이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지역단위에서 자치단체의 역할도 중요한 만큼, 필수업무종사자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관계부처는 물론 자치단체와도 적극적인 소통하는 협력체계를 마련해 나갈 것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6

중소기업 신사업 진출 지원을 위해 구조혁신지원센터를 설립합니다



2월 16일(수), 수원에서 경기 구조혁신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하고, '중소벤처기업 구조혁 신지원센터'의 출범을 선포했습니다.

이날 개소식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권칠승 장관,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 박화진 차관, 대통령비서실 이병헌 중소벤처비서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김학도 이사장 등이 참석해 급격한 환경변화의 위기를 중소기업의 신사업 진출 기회로 활용하고 중소기업의 성장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모두 달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선보였습니다.

구조혁신지원센터는 대기업에 비해 자원과 인력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이 신사 업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산업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해 중소기업이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근로자의 성장과 고용안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중기부, 고용부 등 정부부처가 협력하여 설립하였습니다.

이에 구조혁신지원세터는 중소기업의 사업 및 디지털 전환에 수반되는 직무심화 (upskilling)·직무전환 등을 통합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전환수요 발굴부터 진단·컨설팅, 재정·금융 지원사업 연계까지 전주기를 원스톱 지원합니다. 또한 중기중앙회, 업종별협·단체, TP, 금융기관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하여, 수요기업을 발굴하고 현장 의견의 정책화를 통해 시장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개소식에 이어 개최된 간담회에서는 사업·노동전환 추진시 애로사항과 정부의 지원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사업·노동·디지털 전환 지원제도들이 산업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중소기업의 신사업 진출을 촉진하고 고용확대 및 고용안정의 마중물이될 수 있도록, 이날 논의된 현장의 의견 등을 적극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58 ___ 59 2022. March vol.562



우리 함께 더 나은 내일로

차근차근 앞으로 앞으로

많은 것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하지만 조금씩, 작은 정보들을

차근차근 축적해가는 것만으로도

어제보다 한결 앞으로 나아간 내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우리들의 일상을 날마다 레벨업 해줄

실속정보들을 쏙쏙 뽑아 봤습니다.

날마다 레벨업 + 미디어 속 노동읽기 정리 편집실

국세청 010i71 <트레이서> 속 노동법 010i71

트레이서는 누군가에겐 판검사보다 무서운 곳 국세청, 일명 '쓰레기 하치장'이라 불리는 국세청 조세 5국에 굴러온 독한 놈의 물불 안 가리는 활약을 그린 통쾌한 추적 활극입니다. 국세청이라는 신선한 소재와 박진감 넘치는 스토리로 시청자의 몰입도를 최고라는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시즌2는 OTT 플랫폼 웨이브에서도 공개된다고 하는데요. <트레이서>속 노동법 이야기를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분주한 오즈기업의 하루 "탈세도 하고 사람도 때렸다고요?"







오즈기업의 탈세 장부를 찾아낸 직원들은 세금 추징을 시작합니다. 아침 일찍 오즈식품에 간 동주(임시완)는 이사에게 "듣기로는 탈세도 하시고, 사람도 때리느라 바쁘셨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세금 내셔야죠. 다 끝난 줄 알았습니까?!"라며 동주는 증거인 장부를 공개했습니다.

오즈식품이 피큐시공에게 리베이트받은 것까지 모두 합쳐 세금 추징액을 이야기합니다. 오즈 이사는 내부고발자인 직원을 죽게 내버려둔 장본인으로 내부고발자 폭행은 물론, 폭행의 충격으로 심장마비에 걸린 직원을 모르쇠한 것까지 전하면서 "점주들에게 올 고소고발과 검찰 조사까지 다 대비하시라"는 말을 남기고 떠납니다.



여기서 잠깐!

기업 내 폭행, 폭언 등 갑질은 더 이상 참지 마세요

국민인원위 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7명 이상이 직장 내 폭행, 폭언 등의 괴롭힘을 당한 적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2019년 7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이 상사의 폭행·폭언에 문제를 제기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직까지 사실입니다. 문제 제기한다고 해도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은 데요. 직장 내 본인의 지위를 활용해 폭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엄중 처벌해야 마땅합니다.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로 신고하여 근로감독관의 조사 및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62 ____ **63** 2022. March **vol.562**

야심 가득한 직장인의 위기 "성공하려면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나요?"







본청의 청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중앙지방국세청장 인태준 (손현주)은 겉으로는 결점이 없는 듯 보이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비리도는 감는 인물입니다. 인태준은 감찰과 과장인 아들에게 "서울청이 무능했다는 소리를 들을수는 없어. 사라진 장부, 너희들이 먼저 찾아줘야겠다"라며 사건을 축소하려 정황도 포착되었는데요. 이것은 엄연한 업무방해입니다. 선배가 비리를 저지른다면, 부정한 일을 저지르는 것을 확인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잠깐!

과유불급, 욕심은 적당해!

상급자의 강압적 업무지시나 상대의 업무를 방해하는 업무방해죄는 현행 형법상 일본 형법을 계수한 것인데, 일 본은 1864년 개정 프랑스 형법을 계수하면서 새롭게 '방해'나 '위력'이라는 개념을 창설하는 등 구성요건의 범 위를 확장한 것입니다.

이러한 연혁적인 문제와 더불어 본죄 자체가 위헌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이러한 연혁적인 특징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일을 안 하는 게 일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쓰는 순간부터 조직의 일원으로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트레이서 조세5국 오영(박용우) 과장은 일을 안하는 게 일인 인물입니다. 한때는 조세국 에이스라 불릴 정도로 실력이 출중한 인물이었는데요. 지금은 승진을 하지 않으려고 기를 쓰고 일을 안하는 월급 루팡입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것들은 해내면서 지내고 있어 고용은 유지되고 있답니다. 오영 과장은 왜 월급 루팡이 되었을까요? 월급루팡으로 계속 고용 유지가 가능할까요?



여기서 잠깐!

책임감을 가지고 근로의 의무를 다해주세요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근로자는 근로를 해야할 의무가 생깁니다. 하지만 인사노무 실무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용어 중에 '근무(직무) 태만'과 '근무성적 불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지각, 조퇴, 결근을 반복하는 경우,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업무실적 저조, 근로계약상의 성실의무 위반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근로자가 직무태만의 행태를 보일 경우 최후 징계수단으로 해고까지 할 수 있습니다. 징계는 시말서제출, 감봉, 정직, 해고의 순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처음부터 해고를 하게 되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64 ___ **65** 2022. March **vol.562**

날마다 레벨업 + 잡툰 글·그림 난나

























66 ____ **67** 2022. March **vol.562**

날마다 레벨업 + 디지털휴먼 정리 편집실



빅데이터(Big Data Processing)

디지털 시대에서 폭증하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Big Data)'를 관리하고 분석해서 유용한 정보로 사용하는 기술로 1990년대부터 사용되었으며 존 매쉬가 대중화하였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대규모 데이터에 대한 생성, 수집, 분석, 표현을 특징으로 하는 빅 데이터 기술의 발전은 다변화된 현대 사회를 더욱 정확하게 예측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도와주며, 개인화된 현대 사회 구성원마다 맞춤형 정보를 제공, 관리, 분석이가능해 과거에 불가능했던 기술을 실현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빅데이터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과학 기술 등 전 영역에 걸쳐서 사회와 인류에게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가능성을 제시하며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은 2012년 떠오르는 10대 기술 중 그 첫 번째로 빅데이터기술을 선정했으며, 우리나라는 IT 10대 핵심기술 가운데하나로 손꼽았습니다.



핀테크(fintech)

금융(Finance)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 서비스를 모바일 인터넷 환경으로 옮기는 것으로 금융과 IT가 융합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스타트업이 전무했던 금융업에서도 스타트업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IT기술을 활용해 기존 금융기법과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빅데이터가 핵심기술이며, 최근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을 둔 기업도 점차 등장하고 있습니다. 산업의 변화로 혁신적 비금융기업이 보유 기술을 활용해 지급결제와 같은 금융서비스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용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현상으로 흔히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페이팔,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토스페이 나우 등 간편결제 서비스는 물론, 카카오뱅크, K뱅크 등 모바일 은행, 와디즈, 굿펀딩 등 크라우드 펀딩 등이 모두 핀테크의 일종입니다. 핀테크와 혼동되는 개념으로 전자금융이 있는데, 스마트폰뱅킹처럼 금융사의 직접 서비스는 전자금융의 영역이며, 전자금융까지 핀테크로 보는 경우에는 '전통적 핀테크'라고 부른답니다.

INFORMATION TECHNOLOGY















뉴스를 쉽게 이해하는 IT용어

매일 신기술이 쏟아지고, 새로운 단어를 배워야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10년 전 시작된 스마트폰 생활은 더 급진적으로 바꾸고 있는데요. 기술발전의 방향과 속도에 대한 조절력을 가지고 아날로그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IT용어, 디지털, 신기술을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사물인터넷(IoT)

IoT(Internet of Things)는 정보통신기술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해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에 정보를 교류하고 상호 소통하는 지능형 인프라 및 서비스 기술입니다. 흔히 원격에서 조작을 하는 기기를 사물인터넷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표면적으로는 그러하나 본질적으로는 그 기기에 설정된 인터넷시스템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범위입니다. 가전제품, 모바일 장비,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다양한 임베디드 시스템이 자신을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IP를 가지고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어야하며, 외부 환경으로부터 데이터를 취득하기 위해 센서를 내장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러스와 해킹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사물인터넷의 발달과 보안의 발달은 동시에 이뤄져야 한합니다.



Al(Artificial Intelligence)

흔히 인공지능이라고 일컫는 시는 인간을 포함한 동물이 갖는 지능 즉, Natural Intelligence와는 다른 개념으로 컴퓨터가 인간의 지능적인 행동을 모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인간의 학습능력, 추론능력, 지각능력을 인공적으로 구현하려는 컴퓨터과학의 세부분야 중 하나인 셈인데요. 정보공학 분야에 있어서는 인프라 기술이기도 합니다. 1940년~1950년대초반에 이르러서 수학, 철학, 공학, 경제 등 다양한 영역의 과학자들에게 인공적인 두뇌의 가능성이 논의되었고, 1956년 인공지능이 학문 분야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와 같은지능을 만들 수 있는 방법론이나 실현 가능성 등을 연구하는과학 기술 분야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RPA(Robot Process Automatic)

RPA는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를 뜻하는 말로 이전에 사람이 반복적으로 하던 일을 로봇이 대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학습을통해 데이터베이스에서 스프레드시트로 데이터 행을 옮기는 것과 같은 반복적인 일을 수행하는 것인데요. 기존의 로봇이 공장 생산 라인의 실체적인 기계였다면 RPA는 소프트웨어로구현된 사무직을 위한 로봇입니다. 현재 일상적인 회사 업무에서 가장 손쉽게 적용되고 있는 부분을 예로 든다면, ERP시스템에 있는 데이터를 다운로드해 엑셀로 정리하거나, 엑셀 혹은텍스트 기반의 데이터를 ERP에 가동 입력하는 프로그램이라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block chain)

블록체인은 관리 대상을 블록으로 규정하고, P2P 방식을 기반으로 하여 소규모 데이터들이 체인 형태로 연결된 분산 데이터 저장 환경에 관리 대상 데이터를 저장함으로써 누구도 임의로수정할 수 없고, 누구나 변경의 결과를 알아볼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근본적으로 분산 데이터 저장기술의 형태로, 블록체인 기술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암호화폐 거래에 사용되고있습니다. 암호화폐의 거래과정은 탈중앙화된 전자장부에 쓰이기 때문에 블록체인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많은 사용자들의 각 컴퓨터에서 서버가 운영되어, 중앙에 존재하는 은행 없이 개인 간의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합니다.

68 ____ **69** 2022. March **vol.562**

날마다 레벨업 + 하이파이브 정리 편집실

카톡도 통역이 되나요?



카톡어 이해 1: 삼사 편

X세대 이상의 중장년층은 카톡에서 줄임말 쓰는 걸 선호하지 않습니다.

용어 자체보다는 문맥의 뉘앙스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무슨 일 있어요?

ㅇㅇ/ㅇㅋ: 상사들이 가장 많이 쓰는 2대 줄임말. 귀찮아서 쓰는 경우가 많으므로 "알았으니 빨리 일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OO씨···: 말줄임표는 청년 세대에게는 의미심장한 뉘앙스를 내포하는 경우가 많지만 중장년층은 그냥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긴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즘 무슨 일 있어요?: 뜬금없이 상사에게 이런 카톡이 왔다면? 진짜로 근황을 묻는게 아닙니다. "요즘 직무 태도가 맘에 안 드는데 정신 안 차리나?"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음…: 카톡 대화 중 이런 표현은 "마음에 들지 않으니 내가 굳이 말하기 전에 알아서 다시해오라"는 의미를 담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안 있나요?: 역시 "다시 해오세요"를 돌려서 한 표현입니다.

그 건 어떻게 됐나요?: 진행 상황을 묻는 말이기도 하지만, "내가 묻기 전에 왜 보고 하지 않니?"라는 짜증이 섞여 있습니다.

그 건 어떻게 됐나요?

손뼉은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요. 소통이 어렵다는 것은 어느 한쪽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하이파이브>에서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기분 좋게 "짝!" 손뼉을 마주칠 수 있는 다양한 소통의 노하우들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달은 '직장생활 카톡 편'입니다.



카톡어 이해 2: MZ 편

MZ세대의 카톡어는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단번에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널리 쓰이는 '넵'의 활용과 뉘앙스만 이해해도 MZ세대와 한결 더 깊이있게 카톡 대화를 이어 나갈 수 있습니다.

넵: 자기보다 높은 사람에게 쓰는 긍정의 표시. "네"는 좀 성의 없을 것 같고 "넹"은 너무 가벼워 보일 것 같을 때 사용합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넵병'에 걸려있습니다.

넵! / 넵~: "당신의 말을 아주 잘 이해했다"는 긍정의 표현입니다.

넵넵: 너무 "넵"만 한 것 같을 때 약간의 변화를 준 표현입니다

앗넵 / 넵…: "죄송합니다"라고 실수를 인정하는 표현입니다.

넵ㅜ: 힘듦과 짜증을 소심하게 가미한 것으로 "알았으니 그만 좀 하세요"라는 속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네: 줄곧 "넵"을 쓰다가 갑자기 "네"를 쓴다면, 정색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넨 / 넨…

70 ___



2022. March **vol.562**

날마다 레벨업 + 주말에 뭐할래 정리 편집실

다양한 분야의 교양서는 지식을 넓혀주는 기쁨은 물론, 줄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갈등과 충돌 그리고 이해를 도와줍니다. 혹자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세계에 대한 이해가 교양서를 통해 이뤄진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올 봄에는 교양서를 읽고 비로소 보이는 세상을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30분씩 <퇴근길 인문학 수업>

퇴근길에는 지친 몸을 이끌고 탄 지하철에서 졸기도 하고, 하릴 없이 SNS를 들여다보거나 음악을 듣고 영상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지 않으세요? 이렇게 보내는 시간이 가끔 아쉬워 생산 적인 일을 하고 싶기도 합니다. 이동하는 짧은 시간에 뭘 할 수 있냐고 물으신다면 <퇴근길 인문학 수업> 시리즈(총 6권)를 추천합니다. 한 챕터를 읽는 데 단 30분이면 충분하거든요. 짧지만 깊이 있는 지식도 얻고, 일하느라 소진된 마음도 재충전할 수 있을테니까요.



21세기에 읽는 20세기 사건들 <거꾸로 읽는 세계사>

민고 보는 작가 유시민의 <거꾸로 읽는 세계사>는 1998년 첫 출간이후 쭉 스테디셀러에 머물렀고, 2021년 개정판이 출간되면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유시민 작가는 박학다식함과 논리 정연한 글솜씨로 어려운 것도 쉽게 풀어내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거꾸로 읽는 세계사>역시 지루한 것도 재미있게 풀어내며 독자들을 끌어당깁니다. 단순히 읽고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사실의 진실도 알게 되고역사에 대한 안목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뉴스 채널 유튜브 <14F>

'매일 밤, 필요한 이슈만 딱딱 골라드릴게요'라는 소개처럼 매일 저녁 7시에 필요한 뉴스만 골라서 소개하는 <14F>입니다. 영상 대부분이 10분을 넘지 않아서 스낵 콘텐츠가 아니냐는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뉴스를 챙겨볼 시간이 없는 현대인들에게 딱 맞는 채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스마트폰에 최적화되어 직관적인 영상을 제공합니다.





과알못도 1분이면 과학 홀릭 유튜브 <1분 과학>

과학이 이토록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꿀잼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1분 과학>. 다양한 과학 관련 교양 정보를 깨알 드립과 함께 전달하고 있습니다. 빠져들면 10분이 1분처럼 흐른다는 평이 있을 정도로 과학을 흥미진진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인기에 힘입어 2020년 만화 형식으로 재구성한 도서 <1분 과학>도 출간되었다고 합니다.





듣기만 해도 똑똑해져요 팟캐스트 <듣똑라>

중앙일보/JTBC에서 제작하는 팟캐스트 <듣똑라-듣다보면 똑똑해지는 라이프>는 밀레니얼을 위한 새로운 뉴스 서비스입 니다. 중앙일보/JTBC 콘텐츠임이 제작하고 기자들이 출연하 여 시사/경제/법조/문화 등 전반에 걸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최근 유튜브 채널도 개설하였는데 주로 경제, 금융, 부동산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mark>경알못이라면</mark> 팟캐스트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복잡한 경제 뉴스를 친절하게 전달하는 대한민국 대표 라디오 경제 프로그램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평일 오전 8시 30분, 주말 8시 5분부터 MBC라디오에서 생방으로 진행되며 팟캐스트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 용어도 적절한 예시로 금방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경제를 알고 싶은 초보자들도 쉽게 들을 수 있는 경제 팟캐스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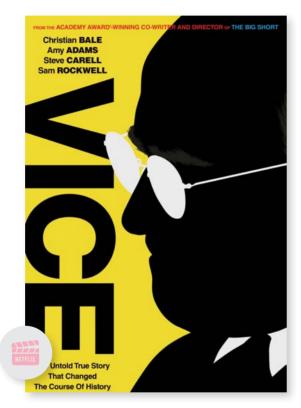
72 ___ **73** 2022. March **vol.562**

많은 사람들이 정치를 냉소하거나, 혐오하거나 외면합니다. 이는 사실 정치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관심은 있지만 잘 알지 못해서 답답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정치를 이해해보세요. 대통령 선거를 앞둔 3월. 정치를 향한 답답함과 아쉬움을 달래줄 채널들을 소개합니다.



정치는 프레임 전쟁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킹메이커 로저스톤>

<킹메이커 로저스톤>은 말 그대로 미국 대선 킹 메이커 로저스톤이 미국 공화당의 현대사에서 수행한 기념비적인 역할을 추적하는 다큐멘터리입니다. 이기기 위해 추악하고 더러운 짓을 일삼으며 대중들의 눈을 멀게 하여 보는 동안 마음이 불편하지만 제대로 된 투표권 행사를 위해서는 볼 만한 가치가 충분합니다.



드라마보다 더 재미있는 넷플릭스 <바이스>

플랜B에서 제작한 영화 <바이스>는 상당히 도발적이면서도 방어적인 정치풍자 영화입니다. 주인공은 대기업 CEO, 국방 장관을 거쳐 부통령이 된 딕 체니로 미국 역사상 가장 은밀하 면서도 가장 막강한 권력을 휘두른 실존 인물입니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으며 그가 내린 결정은 세계를 어떻게 바꿔 놓았는지 확인해보세요.





1980년 5월을 기억해주세요 뮤지컬 <광주>

오는 4월15일부터 5월1일까지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에서 세 번째 시즌을 맞는 뮤지컬 <광주>는 5·18민주화운동을 이야기합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의 탄생 배경을 바탕으로 영웅이 아닌 평범한 시민이 일궈낸 숭고함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2019년 초연 이후, 2021년 재연, 이번이 세번째 시즌 공연입니다.





제대로된 민주주이를 원한다면

TED <3 ways to upgrade democracy for the 21st century>

연구가이자 작가인 맥스 래쉬브룩은 시민을 존중하고 참여시키는 민주주의의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해 집단으로서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며 우리가 정치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지혜와 아이디어를 얻지 못하고, 고립된 채로 살아가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거는 전쟁, 점치는 쇼! <특별시민>

정치9단 서울시장과 선거 공작의 일인자인 선거대책본부장, 겁없이 선거판에 뛰어든 광고전문가가 만들어가는 정치이야기 <특별시민>. 상상력을 기반으로 한 영화가 아니라 현실 정치 를 풍자하는 다큐멘터리 같은 느낌의 영화로 시민이 정치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는 감독의 메시지가 담겨있 습니다.





치열하고 냉정한 정치판 영화 <킹메이커>

대선을 앞두고 최근 개봉한 <킹메이커>는 고 김대중 전 대통 령과 그의 선거 참모였던 엄창록을 모티브로 한 영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킹메이커 엄창록은 고 김 전 대통령 외에도 3명의 다 른 대통령에게 지원요청을 받았던 유례없는 역사상 최고의 킹 메이커라고 하는데요. 그가 왜 대단한 사람인지 영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74 ___ **75** 2022. March **vol.562**

날마다 레벨업 + 플레이리스트 정리 편집실



모두가 힘든 월요일.

초대한 적 없지만 나를 찾아온 월요일. 우리는 출근해야 합니다. 출근 의지를 불태우는 우리들의 출근송 플레이리스트.



►II







'Ready get set go'

준비 시이작~ 출근길을 나서봅니다. 발걸음은 무겁지만 밝고 경쾌한 음악으로 달래보아요.

기리보이 '호랑이 소굴'

그곳이 어디든 출근을 해야 한다면 '호랑이 소굴' 제목이 모든 걸 설명해주네요:)



마마무

드라마

'WOW'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ww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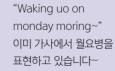
OST로 이미 드라마에서 파워

출근송으로 인 to the 정





Jonas Blue, HRVY 'Younger'



5.

'불타오르네(Fire)'

오늘의 힘듦을 모두 다 태워버리겠다...는 마음을 담아 노래로 내 안의 화를 다스려주세요.

여러분의 플레이리스트는?

다음달 주제는 '상사에게 깨졌을 때 위로해줄송'입니다. SNS에 #월간내일_플레이리스트 #위로송 해시태그를 걸고 콘텐츠를 공유해주세요. 선정되신 분께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고주무관이 추천하는 출근송 플레이리스트 근면성실 이면에 뜨거운 열정을 간직한 고용노동부 감성천재 고주무관의 먼데이 모닝 출근송.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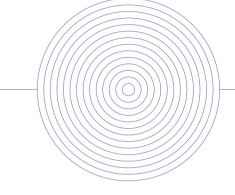
악동뮤지션 '200%'

출근길, 회사에 도착하기 전 내 마음은? 간장콩장콩장장~ 간 콩장장 (Yeah I'm ready)



Muse 'Survival'

2012년 런던올림픽 공식 주제가이기도 한 Survival은 출전 선수뿐 아니라 출근길 근로자에게도 응원가가 되지요.





Pharrel Williams 'Happy'

행복에 대한 노래를 듣는다고 기분이 행복진다면 맨날 이 노래만 듣겠는데… 어 진짜네?



Beck 'Loser'

루저라고 오해 금물! 90년대의 천재 뮤지션으로 평가받는 Beck. 이 시대의 감성과 허세로 채운 노래를 듣다 보면 묘한 용기가 솟는달까?





Sam Smith & Demi Lovato 'I'm Ready'

둥둥둥둥 가슴을 울리는 베이스 소리에 내 마음도 요동치고, 비장한 마음으로 월요일을 맞이하며 읊조린다. "아임 레디!"

76 ___ 77 2022. March vol.562 날마다 레벨업 + 그린 리추얼 정리 편집실

지구는 일회용이 아니니



한국에서는 연간 33억 개에 달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 아침 출근길에 커피 한 잔, 점심 먹고 커피 한 잔… 이렇게 쌓이는 일회용컵은 사실 대부분 재활용도 되지 않지요. 정부는 폭증하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올해 4월부터 카페 등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하네요. 조금 번거롭고 귀찮지만 지구를 위한 작은 습관을 만들어볼까요? 3월에는 일회용컵 말고 텀블러, 개인컵 등 사용하기! 늘봄이랑 같이 실천해보자고요!

3월 챌린지 캘린더

CHECK! 챌린지를 실제로 실천한 날을 캘린더에 표시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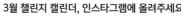
SUN	MON	TUE 1 삼일절 빨간 날엔 특히 일회용품 사용주의보!!!	wed 2	THU 3	fri 4	SAT 5 경칩 기가구기가 나오고 만물이 개어나는 날, 경칩!
6	7	8 3.8 민주의거 기념일	9 20대 대통령 선거 투표는 꼭 해야죠~?	10	11	12
13 \$2.11	14 월요별에 사당린 때 특히 일회용컵 사용주의!	15 3.15 의거 기념일	16	17	18	19
20	21 ^{춘분} 야호~ 봄꽃이 만발하는 춘분!	22	23 ⊕2.21	24	25	26
27	28	29	30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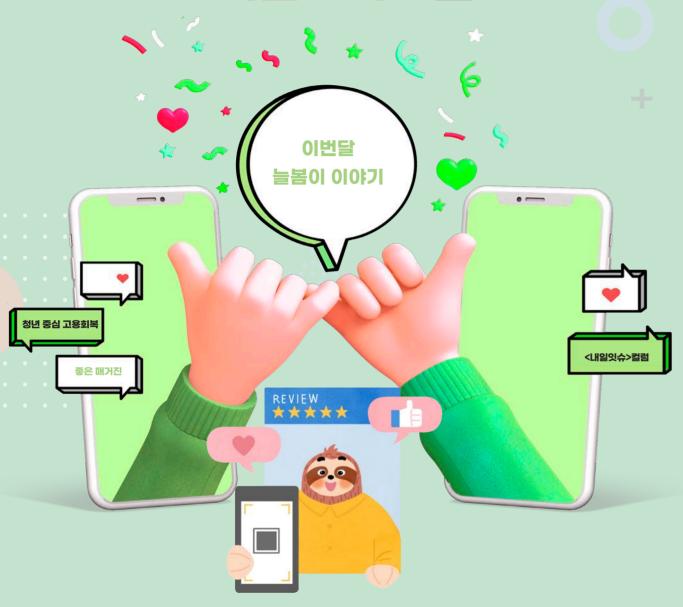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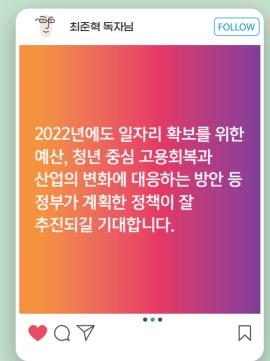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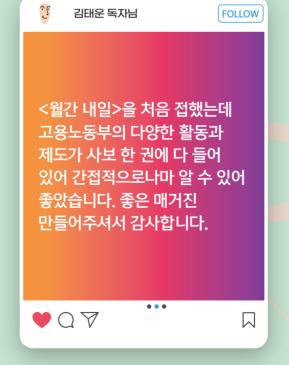
78 ___ 79 2022. March vol.562 **날마다 레벨업 + 내일스타그램** 정리 편집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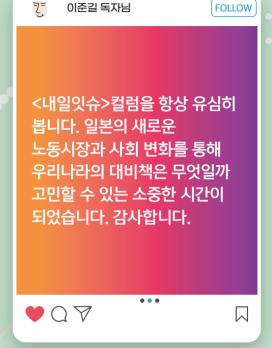
#내일스타그램



3월호 그린리추얼 텀블러사용하기 성공 인증샷과 소감을 #내일스타그램으로 보내주세요. 4월호 나만의 플레이리스트 주제 '상사에게 혼났을 때, 나를 위로해주는 #위로송'에 어울리는 노래를 선곡해주세요.







월간내일 편집실로 날아온 독자 사연을 소개합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 이야기나 월간내일에 대한 소감을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80 ____ **81** 2022. March **vol.562**

고용노동부〈윌간 내일〉 카톡플친 이벤트





친구 맺고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3/25일까지) 참여자 100명 추첨!

이벤트 응모하기

고용노동부 <월간 내일> 카톡 플친을 맺고 이벤트 참여 메시지 전송

*메시지 예시

Kakao**Talk**

₽ 플러스친구

<이벤트 응모>

이름: 늘보미



고용노동부 웹진 <월간 내일> 리뉴얼 이벤트!

월간 내일 웹진이 새롭게 재탄생하였습니다. 리뉴얼을 맞아 웹진 단독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웹진 둘러보고 이벤트 참여하세요~





이벤트 참여하러 고용노동부 웹진 가기 Go Go!

